

#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1. 1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1. 평가개요 .....	1
2. 평가결과 .....	4
(1) 총평 .....	4
(2) 주요성과 .....	5
(3) 평가결과 종합 .....	6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8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116

# 1. 평가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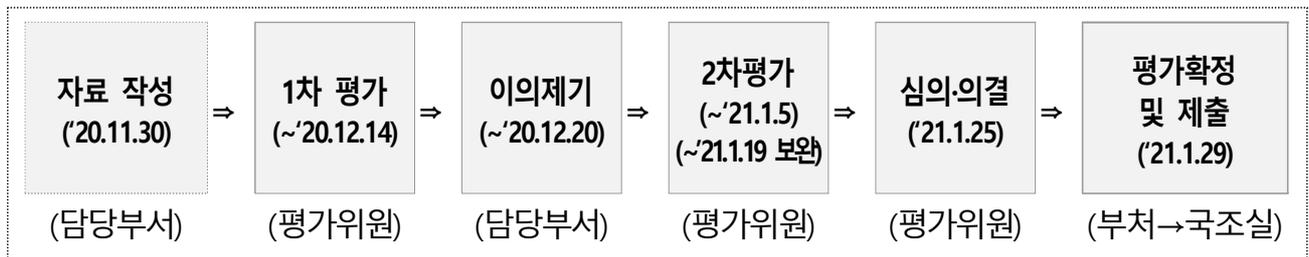
##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방향

- ◇ 농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과제(관리과제 46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에 맞춰 관리과제(46개) 선정('20.3월)
- ◇ 정량지표(92%), 결과지표(78%)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추진실적 및 정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부내 의견수렴 및 전문가(KREI)의 검증,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표 설정
-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외부평가위원(29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 정량지표 사전 점검(KREI 성과관리센터), 평가결과(1차 평가)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 제고(오류 발생 방지)
-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
  - 부서·개인통합성과평가에 반영(32~48%), 정책개선 등에 활용

## (2) 평가추진 개요

### □ 평가추진 체계



## □ 평가방법

◇ 과제담당 부서에서 작성·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서 외부평가위원이 평가지표(정량·정성)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자료작성) 관리과제 담당부서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실·국→혁신행정, 11.30일 까지)
- (자료검토·확인) 평가총괄부서(혁신행정담당관실) 및 KREI(성과관리센터)에서 자료 미비사항 확인·보완
  - 정량지표 점검·확인함으로써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방지
- (1차 평가) 제출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위원이 평가 실시, 사전검토 자료 및 사전질의 답변서 제공
- (이의제기 및 자료보완)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12월말 기준으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 평가자료 보완
- (2차 평가)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재평가 실시(혁신행정→자체평가위원)
- (결과 확정)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및 부내 보고·확정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46개 관리과제(41개 과·팀)

농촌		농정		식량		국제		축산		방역		식품		유통		농생명	
계	7	계	7	계	5	계	4	계	3	계	4	계	4	계	6	계	6
농정	1	농정	1	신정	1	국제	1	추진	1	방역	1	신정	1	유통	1	농정	1
지역발	1	농지	1	신정	1	국제	1	추진	1	방역	2	신정	1	유통	1	농정	1
노년	1	경인	2	공적	1	국제	1	추진	1	방역	1	신정	1	유통	1	농정	1
노년	2	그정	2	농기	1	국제	1	추진	1	방역	1	신정	1	유통	2	농정	1
농정	1	재해	1	간척	1	국제	1	추진	1	방역	1	신정	1	유통	1	농정	1
농정	1											클러스터	-	인생	1	농정	1
에너지	1															농정	1
저시	-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등 반영여부</li> <li>○ 과제추진계획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li> </ul>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절성 등 확보 여부</li> </ul>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 관리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별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수립한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정책을 적시에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li> </ul>
	2-2. 관련기관·정책간의 협업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정책간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정보공유·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 여부</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 적극성, 달성여부 정도를 확인하여 단계별로 배점 부여</li> </ul>
	3-2. 정책효과 발생 및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li> </ul>
④ 환류 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추진 단계에서 정책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 적시에 대응하였는지 여부</li> </ul>
	4-2. 정책 환류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적으로 과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외부기관 지적·평가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환류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평가</li> </ul>
⑤ 가·감점	5-1. 과제 중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가점 부여</li> </ul>
	5-2. 자료제출 및 입력의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자료 및 시스템 입력 지연시 감점부여</li> </ul>
계	5개 항목 10개 평가지표	

## 2. 평가결과

### (1) 총 평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잦은 자연재해, 정책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성과 달성

□ '20년도 총 52개 과·팀(사업담당 과·팀 43개) 중 41개 과·팀의 4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2과제(5%), 우수 9(20%), 다소우수 7(15%), 보통 14(30%), 다소미흡 7(15%), 미흡 5(10%), 부진 2(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친환경 농업육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공익직불제 안착, 쌀 수급안정 도모,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임대차 관리개선 등 11개 과제(상위 25%)이며,

- (우수과제) 정책수혜자 체감도가 높으며, 보다 적극적·전략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과제

○ 미흡 이하 과제는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농기자재산업 육성 등 9개 과제(하위 15%)인 것으로 나타남

- (미흡과제) 상대평가에 따라 평가위원들의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책성과 도출에는 중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

□ 총 46개 관리과제의 13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8.3%로,

○ 13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관광 여건 악화 및 대면접촉 불가 등 외부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농촌마을 체험관광객 수, 외국인 농촌관광 방문객 수,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건수 등

## (2) 주요성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친환경 농업 육성, 공익직불제 안착, 농지지원 확대 및 임대차 관리개선 등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가축질병 방역관리 강화)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의 획기적 감소 및 확산 차단
  - ASF는 위험시기·요소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확산 차단('20년 2건)
    - \* 신속 수매·살처분 및 집중소독, 가축 이동통제, 농가 방역시설 기준 강화 등
  - 구제역은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통해 '19.2월부터 현재까지 미발생
-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환경친화형 농업 전환에 기여
  -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자발적 환경개선 활동('20년 25개소)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및 친환경농업지구\* 지원 등으로 유기재배면적('20: 385백ha, 전년대비 29.6%증) 지속 확대
    - \* 친환경농업지구 : ('19년) 47개소 → ('20년) 65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35억원)으로 공공소비 및 수요기반 확대
    -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임산부 4.5만명→8)
- (공익직불제 안착) 농업인·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 \* 「공익직불법」 제정('19.12)이후, 세부시행방안 마련('20.4) 및 시행('20.5)
- (농지지원 확대 및 임대차 관리개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유도, 농지원부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
  - 청년농 농지 공급 등으로 청년농 경영규모 확대 및 영농정착 지원 강화
    - \* 청년농 농지 지원면적 : ('19) 1,697ha → ('20) 2,036 (증 339ha 20.0%)
  - '73년 농지원부 도입 후 사상 최초 전국 일제 정비 추진 및 농지임대수탁 활성화 등으로 농지이용 효율 제고(정비율 85%, 52.8/62.1만건)
    - \* 제도개선(기존임대차 한시 인정, '20.5월)후 임대수탁 물량 전년대비 85%(2,351ha) 증

### (3) 평가결과 종합

\*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7개 등급으로 구분

연번	관리번호 및 과제명(46)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I-1-1.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해소(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포함)	다소우수
2	I-1-2. 농식품 투자 활성화	미흡
3	I-1-3.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 및 농지임대차 관리개선	우수
4	I-2-1. 친환경 농업 육성	매우우수
5	I-2-2. 축산환경 개선	다소우수
6	I-2-3.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	우수
7	I-3-1.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확산	우수
8	I-3-2. 개방형 혁신 R&D 추진	우수
9	I-3-3. 종자생명산업 경쟁력 제고	보통
10	I-3-4. 농기자재산업 육성	미흡
11	I-4-1.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다소미흡
12	I-4-2. 농업통상 및 국제기구 대응을 통한 농업분야 위상 강화	보통
13	I-4-3.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미흡
14	II-1-1. 쌀 수급안정 도모(쌀값 안정포함)	우수
15	II-1-2. 잡곡류 생산 및 수요 기반 확충	다소미흡
16	II-1-3. 간척지 활용 등을 통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미흡
17	II-2-1. 농업정책보험 지원강화	다소우수
18	II-2-2.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부진
19	II-2-3. 농장단위 방역강화 등 가축전염병 방역기반 확충	보통
20	II-2-4.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다소우수
21	II-2-5.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강화 및 축산차량 관리제도정비	다소우수
22	II-2-6.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매우우수
23	II-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산지공판 기능 생산자 조직화 포함)	다소우수

연번	관리번호 및 과제명(46)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24	Ⅱ-3-2. 농산물 수급안정 및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화(농업관측포함)	다소우수
25	Ⅱ-3-3. 축산물 수급안정 및 관리강화	다소미흡
26	Ⅱ-3-4. 축산업 허가제 및 생산·유통체계 정비	우수
27	Ⅱ-3-5.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과일간식 지원 포함)	보통
28	Ⅱ-3-6. 꽃 소비 생활화 확산	우수
29	Ⅱ-4-1. 공익직불제 안착	우수
30	Ⅱ-4-2. 농협제도개선	보통
31	Ⅱ-4-3.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부진
32	Ⅲ-1-1. 농촌 정주여건 개선	다소미흡
33	Ⅲ-1-2.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보통
34	Ⅲ-2-1. 농촌 삶의질 향상 및 민관 농정협치체계 구축(공간계획포함)	보통
35	Ⅲ-2-2. 맞춤형 복지강화(사회적농업활성화포함)	다소미흡
36	Ⅲ-2-3. 여성농업인 육성 및 양성평등 강화	보통
37	Ⅲ-3-1.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다소미흡
38	Ⅲ-3-2. 농촌관광 활성화	미흡
39	Ⅲ-3-3. 귀농·귀촌 활성화	보통
40	Ⅳ-1-1.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활성화(로컬푸드 포함)	보통
41	Ⅳ-1-2. 농축산물 안전관리	보통
42	Ⅳ-2-1. 식품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	우수
43	Ⅳ-2-2.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	보통
44	Ⅳ-2-3.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다소미흡
45	Ⅳ-3-1. 수출 스타품목 육성 및 수출시장 다변화	보통
46	Ⅳ-3-2. 농축산물 수출 검역장벽 해소	보통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1-1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불균형 해소

다소우수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청년층 농업창업 활성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1,600명 선발·육성하여 영농정착률 제고 및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 \* 청년 창업농 선발자(4,800명, '18~'20 누계) 중 창업예정자 55.9%, 영농경력 1년이하 88.3%, 비농업계 졸업생 비중 68.8%, 귀농청년 70.5%로 청년의 농촌 유입촉진 기여
- **(농고·농대교육 강화)** 현장 교육수요 반영 및 교육운영체계를 정비하여 '20년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청년농·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소 작기 실습이 가능한 장기·심화 교육과정(100시간이상) 확대·운영('19:20.4%→'20:22.8)
- **(인력 수급 지원)**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번기 농촌인력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추진
  - 농번기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에 기초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년 대비 운영 규모 확대('19: 50개소→'20: 92개소)
  -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중개 기능을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도시 지역의 유희인력 유치를 위한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
-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전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농업경영체의 사전역량진단에 기반한 1단계 기초컨설팅 실시 및 2단계 맞춤형 심화컨설팅(기반조성, 경영역량, 지속성장) 지원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련기관 및 정책간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슈에 따른 협업의 체계를 확대할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을 위해 수확기 농업 인력 수급 영향과 관리 방안 및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의 영향, 농업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li> <li>○ 농업 교육의 역량향상률을 외부 컨설팅업체를 활용 측정하는 등 성과측정을 위한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과지표가 역량향상, 매출액증가, 유상증가 등 산출과 결과 지표 중심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지표 구성으로 판단됨. 다만, 효과가 당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 측정 방법의 체계화가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계획 준수하였음. 다만, 연말 최종 추진실적 확인필요</li> <li>○ 농업 분야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였고, 그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도농중개시스템운영,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추진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실적이 있었으며, 고용부, 법무 부등 관련기관과 협의 결과를 도출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이고, 103.6%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전·후 역량 향상률(%): 기중치0.4. 달성율100%, 적극성:높음</li> <li>- 컨설팅 전후 경영체 매출액 증기율(%) 기중치0.3, 달성율100.7%, 적극성낮음</li> <li>- 인력중개 유상중개 실적(천명): 기중치0.3. 달성율111.3%, 적극성높음</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경영지표 개선 및 농업 분야 신규 인력 고용 확대 당 당초 계획 수립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li> <li>○ 농업신입세대 확보와 양성, 저노동력 또는 노동비용 절감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간담회, 관계기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함</li> <li>○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우수하며, 자체평가결과 및 외부지적 사항이 성실하게 반영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펀드결성현황) ‘20년 11월 현재 68개, 총 11,266억 원(정부 6,202(예산+ 회수금), 민간 4,864) 규모의 자(子)펀드를 결성하여 4,864억 원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 (투자현황) 총 386개 경영체에 7,729억 원 투자(‘20.11월말 기준)
  - \* 농식품펀드는 결성 이후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므로, 결성 후 투자 진행 중인 초기 펀드(1~2년차)를 포함한 평균 투자율은 결성액의 69% 수준
- (청산현황) ‘20.11월 현재 9개 펀드가 청산 완료되었고, 모두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 비율 100%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
- (고용유발) ‘18~‘19년 동안 투자를 받은 농식품경영체 중 고용변화 자료가 있는 168개 업체에서 투자 후 고용인원 1,088개(17.7%) 증가
  - \* 168개 업체 투자 전 고용인원 6,143명 → 투자 후 7,231명(‘19.12월 기준)
- (매출증가) ‘18~‘19년 동안 투자를 받은 농식품경영체 중 매출액 변화 자료가 있는 159개 업체에서, 투자 후 매출액 5,295억원(33.8%) 증가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이 부족
- 협업체계의 범위가 농업분야 기관 등으로 다소 한정적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필요
- 다양한 분야·범위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 시 여건분석, 사전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펀드 설계, 홍보 계획 등을 적절하게 수립</li> <li>○ 목표치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높으나 국민체감 가능한 결과중심의 성과지표 요구</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대체 사업을 추진, 과업을 충실히 관리함</li> <li>○ 사업별로 관련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li> <li>○ 협조체계의 범위가 신하기관, 농업분야 기관으로 다소 한정적</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li> <li>○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이지만 누적지표로 판단하여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성이 보통으로 평가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민간자본 유치 성과가 높게 달성됨</li> <li>○ 특수목적펀드 확대 조성으로 투자소외분야의 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li> <li>○ 향후 기대효과 및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됨</li> <li>○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실시</li> <l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가 적절함</li> <li>○ 자체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lt;청년농 육성&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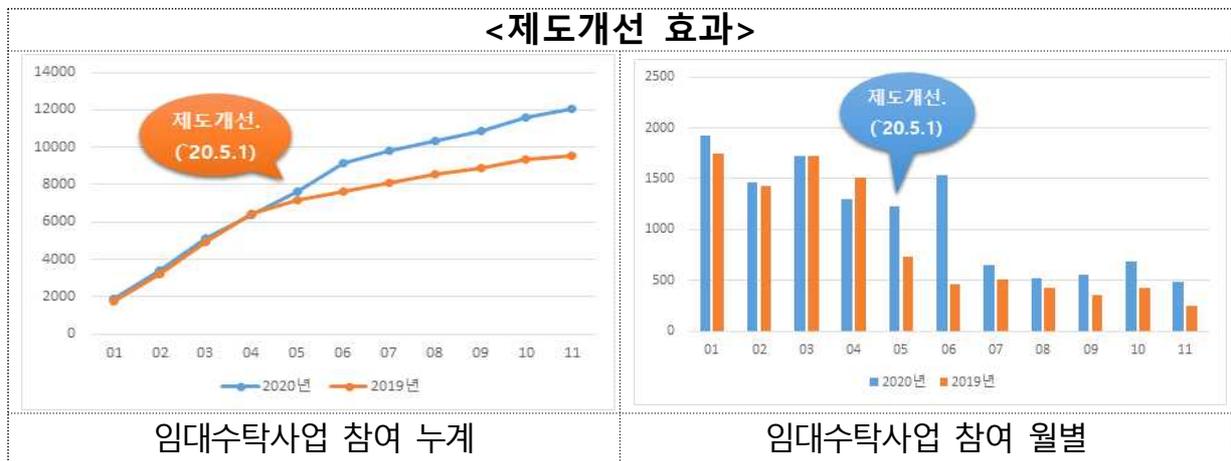
-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농지 매입 조건 개선
  - 제도개선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를 사상 최초로 267ha 신규 매입하고 공공임대 농지 매입물량은 전년 대비 38.8%(453ha) 증가
    - \* 공공임대용농지 매입물량: ('19) 1,165ha → ('20p) 1,618 (증 38.8%)
- 청년농 수요에 맞는 '유희농지 복구-임대 시범사업' 사상 최초로 추진
  - 청년농 농지 수요를 반영하여 유희농지 14.7ha 복구하여 청년농 40명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영농정착 지원
    - \* 공공임대용농지 매입물량: ('19) 1,165ha → ('20p) 1,618 (증 38.8%)
- 청년농 농지 공급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 및 영농정착 지원 강화
  - 농지은행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청년농 1,924명에게 2,036ha 농지를 지원, 전년 대비 339ha(+ 20%↑) 증가
    - \* 청년농 농지 지원면적 : ('19) 1,697ha → ('20) 2,036 (증 339)

## &lt;농지원부 정비&gt;

- 총 197만건의 농지원부 정보를 사상 최초로 전국 일제 정비 추진
  - '73년 농지원부 도입 이후, 전국적인 일제 정비를 최초로 추진하여 코로나, 수해 지원 등 열악한 여건에서 정비율 85% 달성
    - \* 정비대상 : 관외 + 관내 80세 이상 농지소유자 62.1만건 중 52.8만건 정비

## <농지임대수탁 활성화>

- 농지임대수탁 공고절차 개선을 통해 관행 임대차 제도권 흡수
  - 기존임대차 관계를 한시적 인정하는 제도개선('20.5)후 임대수탁 물량은 전년 대비 85%\*(2,351ha) 증가
  - \* 제도개선 후 수탁물량 : ('19.5~10) 2,716ha → ('20동기) 5,112ha(증 85%)
- 농지임대수탁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소규모 농지 이용 효율 제고
  - 경작상태가 양호한 1천㎡이하 소규모 필지 1,004필지(60.7ha)를 854농가에 임대하여 소규모 임차농업인의 권익보호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030 등 수혜대상자 관련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사업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의견수렴했을 뿐 아니라 갈등분석까지 충실하게 수행되었음</li> <li>○ 성과지표의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생각함</li> <li>○ 4개 지표가 성과측정에 대표성이 있으나 산출지표임</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의체가 잘 구축 되었음</li> <li>○ 구체적 일정, 일정 변동 사유 등을 미기재,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추진계획은 ‘일부 완료’로 판단</li> <li>○ 4H, 청년농부연합회 등 수혜대상자 관련 단체와의 협업과제 발굴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목표를 초과 달성함</li> <li>○ 농지이용실태면적조사의 목표치는 3개년 평균에 비교해보았을 때 ‘보통’에 해당</li> <li>○ 청년창업농 맞춤형 농지지원 비율은 연차별 증가치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 농지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 농지 매입 조건을 개선하고, 유휴농지 복구 및 임대 시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등 정책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성과도 우수했다고 판단함</li> <li>○ 계획 대비 정책효과가 나타난 정도가 우수하며 농업구조개선 촉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임</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자체평가시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외부 지적사항도 개선하는 노력이 인정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및 친환경농업 지구 지원 등으로 유기재배면적('20: 385백ha, 전년대비 29.6%증) 지속 확대
- 친환경농식품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법)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단체 확대(2.11개정, 5.12시행)
  - (시행령) 상습위반자 과징금 신설 등 인증관리·감독강화(8.26개정, 8.28시행)
  - (시행규칙)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 및 유기 70%인증 등 규제완화 및 표시기준 강화 등(12.1개정·시행)
-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7개소, 누계)하여 분산된 농가 조직화 및 공동마케팅, 판로개척 활동 등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지원(135억원)으로 공공소비 및 수요기반 확대
  - \* COVID-19 조기극복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임산부 4.5만명→8)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등 대체판로 확보
  - \* 15개 시도 및 1개군 531만명 학생가정에 친환경농산물 27.3천톤 공급 및 12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할인판매 등으로 4.6천톤 판매 지원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 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20: 25개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목표 설정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여 수행한 정책들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대책의 지속적 발굴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을 위한 소비자 분석, 여건분석, 연구결과 활용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함</li> <li>○ 유기재배면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만족도 지표의 조화가 이루어지며, 추가지표 개발도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계획을 적기에 완료하였으나, 일부 12월까지 완료가 예정된 과제들의 경우,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이루어지므로 '일부 완수'로 평가</li> <li>○ 관련기관과의 정책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며, 협의 실적,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목표치를 갖고 있으며 달성도가 높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체판로 제공 등 여러 노력으로 정책효과 발생이 우수</li> <li>○ 소비자 입장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정책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li> <li>○ 생태환경 및 생물다양성 조사 매뉴얼 마련은 친환경 농업의 유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판단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li> <li>○ 주요정책평가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며, 개선노력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고민은 강화되면 좋을 듯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1,022호, 목표 803호 대비 127.3%), 축산환경·소독의 날 참여확대, 축산악취 취약지역·관리농가 집중관리,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 관리 강화 등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 ('18) 1,815호 → ('19) 2,607 → ('20) 3,629 → ('22) 5,000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환경소독의 날 참여확대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중이나, 국민이 느끼는 효과는 여전히 낮음
-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처리 미흡 등으로 악취 및 토양·수질오염 유발

\* 가축분뇨 발생량 : ('14) 4,623만톤 → ('17) 4,846 → ('18) 5,101 → ('19) 5,184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축산환경·소독의 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등을 통한 축산농가 자정활동 강화 및 인식전환 필요
- 축산환경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사례 등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
- 타부처 및 관련기관(단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활동(내용)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대표 성과지표(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등 필요
-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의 실적행률 제고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축산 악취민원,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정책효과에 대한 SWOT분석, 외부환경 변화 및 갈등요인 등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 반영이 잘 된 것으로 판단 - 과제 추진계획과 일정이 연중 잘 배분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을 위한 과정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높음
		○ 정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표를 잘 선정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충분히 측정 가능하며, 현판부착, 지정취소 등 수단으로 지표의 신뢰성 확보 * 제시된 2개 지표모두 축산 농장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표성 인정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 추진계획대로 추진 일정의 관리가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됨
		○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 및 2개의 TF를 구성·운영하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협업과제 등을 발굴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 당해연도 실적 기준: 적극성 '높음', 달성도는 127.3% - 목표치 설정과 달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축산악취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농가 등 대상의 집중 관리를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 축산농가 등의 인식 개선과 실천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임. - 주거지와 밀착된 축사 등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충분히 인정됨 - 문제점들에 근거한 개선안들이 도출되었으며, 지속적인 관리 기능 보완 필요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해 다양한 대응 노력과 개선 실적이 확인됨.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동물보호 캠페인·공익광고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기 동물 발생이 감소·정체할 것으로 예상**(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실적 기준)
  - \* 연간 공고실적(1.1.~11.25.): ('16) 82,909 → ('17) 94,303 → ('18) 111,439 → ('19) 125,353 → ('20) 121,392
- 동물등록 기준 월령 조정(3개월→2개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동물등록이 평년 대비 135% 증가**
  - \* ('16~'18 평균 동물등록 순증) 108천마리 → ('20년(10월까지 집계)) 254천마리
- 학대·유기방지,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
- **맹견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21.2월)를 위해 하위법령 개정(법제처 심사 중) 등 차질없이 준비
- **반려견 기질(공격성) 평가\*** 도입 방안 마련
  - \* 사람·동물을 공격한 개의 기질을 평가하여, 입마개·교육·안락사 등 의무 부과
- 차년도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지원 전년대비 125% 확대**
  - \* ('19년 지원 대상 지자체) 4개소 → ('20년 지원 대상) 9개소
- **사설보호소(82개소, 18천마리 유기동물 보호 추정) 관리 방안 마련**
- 농식품부 주도로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 건전화 유도
  - \* '19년: 102개소 점검(법령위반 17, 준수사항 위반 22) → '20년: 131개소(법령위반 20, 준수사항 위반 42)
- 소비자 보호 및 거래기준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등 **준수의무 강화**(시행규칙 개정)
- 동물복지축산인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농장 개소수 전년대비 14% 증가**('19년 262개소 → '20.10월 298개소)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수행 완료**
- 동물복지위원회 **관계부처 참여**(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 및 위상 강화를 통해 정책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 미성년자의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해부실습 제한**(하위법령 개정) 및 **학교의 동물보호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 \* 제2차 인성교육종합계획('21~25,교육부) 내 동물보호교육 신규도입 포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물등록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관계부처·지자체·학계·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동물복지위원회 등을 통한 추진계획 수립 등 충실히 진행</li> <li>○ `20년 추진과제에 맞춰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상의 주요내용이 적절하게 포함</li> <li>○ 과제의 성과측정에 적합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산출결과지표로 적정하고 전산관리자료로 신뢰성이 높음</li> <li>○ 사회적 가치 가점 있음</li> </ul>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TF, 동물복지위원회, 국회 협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됨</li> <li>○ 협의실적이 우수함. 특히 반려견 안전관리 TF 및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협업을 하는 등 우수</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량적 평가 완료</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려견 기질평가방안 마련,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의무제도 도입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동물복지축산 활성화 연구 수행 등 정책효과가 우수</li> <li>○ 동물학대 처벌 강화, 기질평가 제도, 동물보호센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기대효과가 우수하다고 판단</li> <li>○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정책노력이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상위 목표와 연관이 있으며 정책효과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강화, 반려동물 거래질서와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활성화 등에서 소기의 성과가 확인됨</li> </ul> </li> </ul>
④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 조사 등 의견수렴 실적이 인정됨</li> <li>○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있으며 우수하다고 판단</li> <li>○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며,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 개선위한 노력이 우수했다고 판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22년까지 4개소 조성)
  - \* 추진일정 : (’18) 2개소 선정 → (’19) 추가 2개소 선정 → (’22) 4개소 완공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상주·김제·밀양·고흥) 3기 교육생 선발 추진(’20.7, 208명)
- 농지확보·시설비 부담 등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적정 임대료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추진(’20.6. 착공)
- 기자재 기업 등의 실증연구, 제품성능 테스트, 전시·체험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추진(’20.6. 착공)
- 스마트팜 장비 간 **호환성 확보** 및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자재 **국가표준** 추가 제정 완료(’18년 시설원에 22종 → ’20년 축산 19종)
-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소, 카자흐스탄·베트남)를 대상으로 **수출거점** 조성을 지원
  - \* 스마트팜 데모온실 부지 **확보** 및 현지 기관과 **MOU 체결**(4월 카자흐, 10월 베트남)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적극적 목표 설정**은 보통 수준성과지표의 적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및 **적극적 목표 설정**
- 일부 성과지표 개선 및 성과 측정산식 보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실무작업반 회의, 전문가회의, 간담회·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충실히 수립됨</li> <li>- 추진계획 수립, 대상국 사업(컨소시엄) 선정, 교육생 선발, 혁신밸리 핵심시설 및 기반 조성 착공 등 이행결과물이 구체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과제추진계획에 포함됨</li> <li>○ 보육센터 수료생 수, 혁신밸리 공정률, 스마트팜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 등의 과정/산출지표 이외에 결과 중심의 결과지표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계획에 따라 충실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li> <li>○ 스마트팜 수출 전략 협의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 체계 구축 인정됨</li> <li>- 혁신성장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협의, 기재부 협업 등을 적극적 추진하여 실적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량지표 네 가지 모두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적극적 목표 설정은 보통인 수준으로 판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충실히 나타났으며, 스마트팜 도입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자가노동 시간 감축, 청년창업 보육수료생 창농 사례, LG 팜한농 사례, 수출계약 성공 사례 등 구체적임</li> <li>-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우수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실적이 있음</li> <li>- 주민갈등 조정, 상생협약 체결, 커리큘럼 개선, 데이터 수집 단체 표준, 컨소시엄 구성 등 우수함</li> <li>○ 사업지침 개정, 성과지표 개선 등 정책 환류 노력이 우수하며, 외부평가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를 적극 이행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 농식품 R&amp;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주요 R&D사업의 일몰·종료에 대응하여 중·장기 및 단기 신규 사업을 전략적으로 기획·추진하여 농림식품 R&D 확대 추진
- 현장 중심의 과제 기획, 공정·투명한 평가·관리를 통해 농림식품 R&D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

## ○ 농식품 R&amp;D 경쟁력 제고

- 부·청 R&D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산업화 및 ICT·무인화 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 추진

## ○ 민간주도형 R&amp;D 확대

- 연구기반이 취약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역매칭 사업 및 민간 주도적인 현장 중심의 R&D 확대 추진
- 농식품 R&D 및 주요 사업 평가 과정에 민간 배심원단 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 신속한 R&amp;D 성과 현장 보급 및 확산 채널 다양화

- 기 축적 SNS 컨설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신속 해결 및 컨설팅 지원 내실화 추진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청 유사중복 해결,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R&D 협업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1</b>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함</li> <li>○ 대내외 여건 및 사례분석 반영하여 충실히 수립되었으며, 목표치 및 대표성, 적절성 또한 우수하며, 목표치 또한 초과 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이 적절함</li> </ul>
<b>2</b>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업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됨</li> <li>○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측정 가능하면서 신뢰성 높은 지표들로 설정되었음.</li> </ul>
<b>3</b>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정량적 평가 완료</li> <li>○ 다부처 협업 기획사업 확대 지표의 경우 정량지표이지만 누적지표로 판단하여 2019년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성 높음으로 평가</li> <li>○ 각 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은 모두 높음이고, 달성도는 120%를 초과함</li> </ul>
<b>3</b>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부처 협업 R&amp;D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매칭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참여한 민간 업체의 증가와 그에 따른 매출 및 판로 확대의 성과도 인정됨. 배심원단 참여 증가에 따른 연구개발 신뢰도 향상도 확인됨.</li> <li>○ 다부처 협업 R&amp;D가 확대를 통해 농업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업체 대상의 역매칭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민간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li> <li>○ 과제는 충실히 수행하였지만 상위목표 달성에는 간접적으로 기여함</li> </ul>
<b>4</b>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및 연구노트 관리 방안 마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GSP) 종자수출 51백만 달러, 국내매출 270억 원 등 지속 증가
  - (수출) 타겟 국가별 수출전략 품종개발을 통해 연평균 84.5%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수출액 및 수출국가 등 지속적 증가
    - \* 수출액(만달러) : ('13.) 71→('15.) 995→('18.) 3,873→('19.) 5,034→('20.10) 5,165
  - (국내매출) 토마토, 양배추, 양파 등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통해 연평균 90.8%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 \* 매출액(백만원) : ('13.) 294→('15.) 7,738→('18.) 21,524 →('19.) 22,948→('20.10) 27,025
  - (품종등록) 국내 총 품종등록 증가율(국립종자원 기준, 5년 연평균)은 8.8%이며, GSP사업은 55% 증가, 산업화를 위한 품종 확보 역량 우수
    - \* GSP품종개발건) : ('13) 6→('14) 67→('15) 123→('18) 132→('19) 145 →('20.10월) 129
- (국제종자박람회) 국내 종자기업의 수출확대,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10.15.~11.11., 온라인 및 전북 김제)
  - 온라인 박람회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152,646명('19)32천명) 방문, 바이어 75명(40社) 발굴('19) 21개사 65명, 온라인 B2B 수출상담
- (제도개선) 종자산업 체질 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현장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한 종자산업법령 개정
  - 관련 기관(농진청, 종자원 등 6개 기관)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18~22년) 종합계획 추진 보완
  - 농가가 믿고 소비하는 건전한 종자 유통 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신규 진입 농가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 마련
    - \* 추진사항 : 종자 품질인증제, 수입신고제 등 개선(종자산업법 개정), 종자 수입판매시 정당한 권리증빙 의무화, 묘목 표시사항 완화(법 시행규칙 개정), 육묘업 등록제 개선(법 시행령 개정), 육묘업 농업손실보상 개선(국토부 협업)

- (생명산업 육성) 농업생명자원법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농업생명자원법 개정('19.8)이후 시행령('20.2), 시행규칙('20.11)의 개정을 통하여 인력 교육, 산업화 설비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업생명자원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의 기능개선(국제규격에 맞는 생명자원DB 표준화, 특히 DB 구축 등)
    - \* 생명자원통합 DB구축수 ('19) 3,580천건 → ('20) 4,209천건으로 증가
  -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명관련 산업 지원
    - \*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사업의 결과 '20년 수출 21건, 제품화 28건
- (곤충산업 육성) 생산기반 구축, 곤충산업 홍보와 소통강화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곤충농가의 생산·가공시설 지원 및 곤충유통사업단(곤충농가단체, 지자체, 연구기관, 유통업체 포함) 조직을 통한 유통의 규모화 지원
    - \* 사료용 곤충산업화(2개소, 20억), 곤충사육시설현대화(30억), 곤충유통사업지원(2개소, 5.2억)
  - 제2회 곤충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SNS, 유튜브 활용, 곤충산업육성 중장기방안 관련 대국민공청회 포함)를 추진을 통한 곤충산업 홍보 강화
  - 정책연구용역 및 전문가(농진청, 지자체, 협회, 농가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제3차 곤충 및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GSP 사업 종료 후 연구성과 분석 및 GSP 후속사업(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갈등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21.12월)
- 의견수렴 및 산업분석을 통해 곤충산업 육성(과제목표)을 위한 중장기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21.6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실태조사, 관계기관 회의,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의견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li> <li>○ 다양한 성과지표로 구성하였고, 지표가 구체적이며, 정책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음</li> <li>○ 과제의 목표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및 과제의 성과지표의 적절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추진일정 관리 및 협업실적 및 성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종자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 및 운영위 운영, 국토부 협업 토지보상제 개선 등</li> <li>○ R&amp;D 단계부터 실제 산업화 (식물백신시설)까지 다양한 과제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우수한 협업 능력을 보임</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달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상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연계 노력이 요구됨</li> <li>○ 골든시드프로젝트 수출액 지표는 적극성이 높으나 다른 지표의 경우 적극성은 보통</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li> <li>○ 정책의 효과와 결과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가능하며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첨단육종기술 분석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실시</li> <li>○ 실행된 제도나 정책의 실효성 파악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충분한 제시가 요구되며, 향후 기대효과는 보통이며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신문고,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회 등 의견수렴 실시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제시함</li> <li>-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환류 이행하였으며,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은 보통임</li> <li>○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자체평가시 검토·지적사항 등에 대한 정책개선·환류 이행으로 우수</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기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수요 증가를 통해 농기계산업 육성
  - \* 농기계 임대사업소(누계) : ('17) 443개소 → ('18) 469 → ('19) 499 → ('20) 520
  - \*\* 발농업 기계화율 : ('14) 56.3% → ('16) 58.3 → ('18) 60.2 → ('20) 61.9
- (농약) 농약 포장지 표시사항 개선 및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19.7월~) 및 전산화('20.1월~)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제고
  - \*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 의무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정보관리
- (비료) 부적합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 차단 등 비료 품질관리 강화 및 친환경비료 지속 지원 등을 통한 비료산업 육성
  - \* ('20) 유기질비료 268만톤/1,341억원, 토양개량제 46만톤/564억원 지원
  - \*\* 비료관리법 개정('20.2월)하여 농관원 조직(117개 사무소)을 비료 품질검사에 활용
- (수출) 농기자재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한 수출 지속 지원
  - \* 농기계 수출실적 : ('19) 11.4억불 → ('20.p) 10억불(전년 대비 △12.3%)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업 내용의 특성상 시행계획 상위 목표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본 과제의 상위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농기계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이 계획에 잘 반영됨</li> <li>○ 과제명에 부합하기 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개발 필요, 단, 정책 및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과제명 수정 필요</li> <li>○ 각 성과지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으며,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19건 중 18건)의 추진일정이 계획 대비 완료되었으나, 비료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건은 근거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일부 완수로 판정</li> <li>○ 농진청, 농협, 민간주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함, 부처 협업을 통한 협업과제 발굴 추진실적이 인정되며 성과 우수</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토양 산도(pH), 농기계 수출액 등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제고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는 충실히 수행하였으나, 상위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li> <li>- 농기계, 농약, 비료정책을 통합하여 실시하면 스마트 농업에의 기여도가 더 높아질 것임</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개발 R&amp;D 적극 지원 필요</li> <li>○ 내·외부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 개선 있음</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FTA 협상) 농산물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고 對아세안·일본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RCEP 타결) 쌀·쇠고기·마늘·사과 등 핵심 민감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주·막걸리, 사과배, 딸기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 (한-인도네시아 FTA 서명) 주요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망고)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으며 사과·배·감, 딸기, 커피음료 단계적 관세철폐로 수출 확대 기반 마련('20.12.18)
  - (캄보디아) 라면, 딸기 등 對캄 수출유망 농식품을 개방요구해 향후 농식품 수출 확대 기대
  - (한-중 서비스·투자) 국내 농업 관련 서비스업 중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실익 창출
- (FTA 이행) FTA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및 농업 발전을 위한 기회 마련
  -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농림수산협력 약정의 재체결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전문가 훈련 등 기회 확보
  -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농업협력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세칙을 실무합의, 향후 농업협력 사업 논의를 통해 농업분야 교육 및 훈련 방법 모색 가능
  - (한-중 FTA 공동위원회) 우리 농기업의 對중국 수출 통관 장애에 대해 중측의 정보 교환 협조를 이끌어냄
- (FTA 영향분석 모델 개선) FTA 협상시 담당 실무자가 시장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영향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 (FTA 협상지원시스템 구축) 양자현안, 국제회의, 검역 정보 등 국제 협상 관련 업무영역 확대와 영향분석 신모형 기능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FTA 협상 대응 가능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세부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계획상의 추진 일정과 실제 추진일정이 불일치함.
  - 계획 수립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예정된 국제협상 일정이 모두 취소·잠정 연기되어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었음.
  - 협상상대국의 국내 정황 또는 협상 추진 과정에서 상대국과의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추진계획상의 일정과 실제 추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음.
-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 효과 부족
  - FTA 협상은 협상이 개시된 이후 발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협상 업무의 특성상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가시적인 서비스 체감 효과를 제시하기 힘들
- 성과관리 지표의 대표성 부족
  - 협상 및 의견수렴 횟수로는 전략적인 FTA 협상 대응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리과제 성과지표 세부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전 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
-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FTA 협상 및 이행위 대응
- 결과지표 성격의 지표로 성과관리 지표 보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분석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며 의견수렴의 적극성이 부족</li> <li>○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li> <li>○ FTA 협상별 의견수렴 실적(회)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며 의견수렴 후의 성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표가 필요해 보임</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외생변수를 참고하여 평가함</li> <li>○ FTA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확인됨</li> <li>○ 연구기관과의 협업 실적은 인정됨</li> <li>○ 관련기관정책간의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실적 미기재</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 12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판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 등 구체적인 실제 효과 기술 필요</li> <li>○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로 보호 일부품목의 관세철폐 등 정책적 필요가 큰 사항에 대처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19년도 대비 20년도의 정량적 성과분석 수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 제시가 필요함</li> <li>○ 정책효과 발생이 우수하나 대국민 서비스 관리가 다소 미흡함</li> <li>○ 농식품 수출 증대 및 농업협력사업을 통한 전문인력, 농업인력 역량강화 등 향후 효과 기대됨</li> <li>○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연관성이 결여됨</li> <li>○ 정책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기술 필요</li> <li>○ 작년에 지적받은 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 국제기구 농업분야 대응을 통한 국제협력 및 위상 강화

-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WTO 농업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협력에 기여하고, 농정 성과 홍보 및 한국농업의 위상을 강화함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와 미·중 통상 갈등 지속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됨
    - 이에, 우리나라는 식량수출국의 무분별한 수출제한이 수입국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속 주장하여, 상당수 수출제한 조치가 조기 해제되는 성과와 다자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함
- 코로나19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세계 식량안보, 농산물 공급망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위기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G20 특별농업장관 공동성명 채택을 주도 (4.21)하는 등 G20 및 APEC 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촉구함
    - \* 러시아(밀), 베트남(쌀) 등 수출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늘어가던 상황에서 수출제한을 지양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성명 문안에 관철

## ○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내외 농업위상 강화

- TRQ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WTO 통보의무 이행, 무역정책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WTO 투명성 강화에 기여
- 또한,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유통 질서의 문란 방지 및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함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의 특성상 결과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보완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관련 통계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등과의 검토 회의, 주요 외신 및 각국 현지 농무관을 통해 최신 농업통상 동향 파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li> <li>○ 사전계획 수립, 월별 세부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li> <li>○ WTO 등 국제 기구 회의 대응에 대한 단순 정량 위주의 실적 지표보다, 대응 후 결과에 따른 실적이 구체적이면 좋을 것으로 보임</li> <li>○ 지표에 대한 성과가 최종목표 달성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는 미흡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일정에 맞춰 완수됨</li> <li>○ 농업통상세미나, TPR자문단 및 민간자문단 회의, 관세청, 기재부와의 협업 등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함</li> <li>○ 농업통상 분야 국내외 논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협의체 및 농업통상분야 투명성 의무 이행 관련 협의체(aT, 농촌진흥청 등)를 구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국제회의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이 우수함</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의 신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성도가 높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등 어려운 과제 추진 여건 속에서 농업분야 국제협력 및 위상 강화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 위상 강화 등과 관련하여 정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례들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 등 실제적인 효과 등의 기술이 부족함</li> </ul> </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과의 소통을 충실히 수행함</li> <li>○ 외부평가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이행을 위해 노력함. 다만, 성과지표 발굴에 대해서는 미흡해 보임</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10년 대비 해외개발면적 6.3배 증가, 식량확보량 6배 증가 및 해외곡물 반입 가상훈련 등 식량안보 대응
  -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여 진출기업수, 개발면적 및 확보량 증가 등 해외농업 활성화 정책효과 발생

\* 13개 기업 신규 진출, 31개국에 200개 기업 해외농업개발 신고

- 진출 기업수: ('14) 149 → ('15) 163 → ('16) 169 → ('17) 171 → ('18) 179 → ('20) 200
- 생산·유통(천톤) : ('14) 195 → ('15) 283 → ('16) 426 → ('17) 493 → ('18) 622 → ('20p) 1,334
- 국내반입량(천톤) : ('14) 7 → ('15) 10 → ('16) 28 → ('17) 37 → ('18) 47 → ('20p) 122

- (ODA) 농업 ODA 지원규모 및 국제농식품 분야 협력 확대
  -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업발굴로 ODA 지원규모 확대
  - \* ('17) 173억원 → ('18) 651 → ('19) 664 → ('20) 721('17년 대비 318% 증가)
  - 9개 국제기구, 신남방·신북방 8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농업 ODA 포럼을 개최하여 ODA 분야 등 국제농식품업무 분야 협력 확대
  - \* (국제기구) FAO, IFAD, WFP, WB, IRRI, UNDP, UN-HABITAT, ILRI, GGGI  
(신남방 6개국) 베트남 미얀마 리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니, (신북방 2개국) 몽골 아르메니아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지표가 과정지표로 판단되며 생산 실적 같은 결과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의견수렴은 우수하나 제도적 개선조치 부족

- (ODA) ‘총 수혜자 수’ 성과지표는 역량강화 등 교육분야 성과 측정에 적당한 지표로 시설건립, 기재자지원, 역량강화 등 ODA 사업 전반에 걸친 수혜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성과지표 추가발굴 등 개선 검토 필요 및 현장 의견에 대한 제도적 개선조치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종합평가 연구(~'21.3월)를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내실있는 성과지표 발굴 검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매뉴얼 개선(안)`(`20.12월) 보완 추진
- (ODA) 수원국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등 수혜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규발굴 등 개선보완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과 관련 통계 활용 등을 통해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결과물이 우수함</li> <li>- ODA는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의견수렴,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은 우수하나 종합적인 전략 미흡</li> <li>- 식량원조와 본 과제의 정책 간 연관성 발굴이 필요함</li> <li>○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다소 결여하고 있으며, 결과지표로서의 기능도 부족</li> <li>- 해외농업자원개발면적은 과정지표로 판단, 결과지표 포함 필요, ODA는 생산량 증가나 농가소득향상에 대한 지표 설정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상 12월 추진 예정 과제라도 평가시점(12월 1째주)에 미완료 상태인 18번 과제는 '일부 완수'로 평가함</li> <li>○ 관련 기관과 협의체구성이 인정되나 협력사업 등이 다소 부족, 타기관과 협업 부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표 모두 목표치 달성하였으며, '총 수혜자'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이 '보통'으로, '해외개발면적'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이 '높음'으로 판단됨</li> <li>* 총수혜자는 농업과 관련성이 낮은 주민편의시설, 도로와 같은 사업의 수혜자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li> <li>○ 정책효과 발생이 우수하나 대국민 서비스 관리가 다소 미흡함, 향후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전개됨</li> <li>- 수원국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정도 확인 곤란</li> <li>- 비상 시 곡물 반입을 통한 국내 안정화에 크게 기여 하리라 판단</li> <li>○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등을 통한 의견청취 인정됨</li> <li>- 문제점 분석에 비해 제도적 개선 조치 부족</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이 양호함</li> <li>○ 농어촌공사와 연계협업, 적극적인 지표개발 등 다소 부족</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쌀 수급안정제도)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20.7월 도입)
  -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신지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
  - ①수급대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10.15일까지 수급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선제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
    - ① (매입 기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또는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매입 가능  
(판매 기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 또는 '3분기 연속 가격상승률이 1% 이상 지속'되는 경우 판매 가능
    - ② 「양곡관리법」 제16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올해 10.12일 '2020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생산량 감소 폭이 커짐에 따라 11.25일 '보완대책' 수립·발표
- (논 타작물재배) 타작물 생산기반이 미흡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목표(2만ha) 대비 높은 실적(2.15만ha) 달성
  - 21.5천ha(목표 대비 107%)의 논타작물 재배를 통해 약 11만톤 사전적 시장격리 효과와 재정절감(재고관리비 등 약 2,551억원) 효과 발생
  - 사업을 통해 자급 기반이 취약한 콩 재배단지 조성 등 식량 안보 강화
- (공공비축)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공비축(APTERR 포함) 35만톤을 매입하고, 적정 생산 유도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종검정제 실시
  - 참여농가 중 7,680농가(표본추출 3%)를 대상으로 품종검정 일치 여부 점검 → 6,881농가(89.6%) 매입대상 품종과 일치
  - \* 품종검정 위반률 : ('19) 15.0% → ('20) 10.4% (4.67%p ↓)

- (정부양곡 관리)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가공용, 복지용 등 용도별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정 재고를 유지함으로써 수급 안정에 기여
  - 가공용 쌀 특별공급('20년 317천톤)을 통해 가공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산업 육성 → 쌀 가공식품 수출 25% 증가
  - \* 쌀가공식품 수출액: ('19.10월) 88,472천\$ → ('20.10) 110,576 (전년 동월比 25%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약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10kg, 연간 12만톤 공급하여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 \* 복지용 쌀 공급 관련 국민디자인단 운영('20.6~10월)을 통해 신청 절차 간소화, 포장재 개선(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우수과제 선정)
  - 가공용, 주정용, 복지용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20.10월말 정부양곡 재고 98만톤 보유하여 적정 재고 수준 유지
- (소비 촉진) 중장기적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미래·청년세대의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지원 및 쌀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14개소, 13만명), 초등생 대상 '쌀 맛나는 학교'(178개교, 107천명) 등을 통한 맞춤형 식습관 형성 지원
- (해외 원조) 중동, 아프리카 및 아시아 6개국 난민, 이재민 등에 쌀 52,950톤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요 창출 및 국격 제고
  - WFP를 통해 예멘(19천톤), 에티오피아(16), 케냐(10) 및 우간다(5) 등 쌀 5만톤 지원 → 농지 1만 ha 휴경 효과
  - 애프터(APTERR)를 통해 미얀마 600톤, 필리핀 2,350톤을 현지 재해대비용 및 긴급구호용으로 지원 → 협정을 통해 필요시 원조 요청 가능
  - \* (필리핀) 지진·산사태·홍수피해(23만명), 화산폭발 피해(57만명) 이재민 지원
  - \* (미얀마) 코로나19 확산 및 이동금지 명령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격리자 16만명 지원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장기적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및 쌀가공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 추진 필요
- 쌀 수급 안정 관련 통계 현황, 관련 사례, 정책효과 외부환경변화, 갈등 요인 등을 사전 조사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 분기별 과제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쌀수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전분석과 의견수렴을 우수로 판단</li> <li>○ 정부양곡 판매량, 쌀 해외원조실시, 논 타작물 전환실적, 공공비축 매입품종 일치율, 쌀 가공식품 호감도 등 각 성과지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제 목표에 부합함</li> <li>- 다만, 성과지표가 과도하게 많으므로 향후 보다 단순하게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추진일정에 맞춰 모든 과제를 완수함</li> <li>○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쌀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하고 수급 제도 운영을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li> <li>○ 코로나19 환산으로 식량안보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식량안보 TF 구성 및 운영 등</li> <li>○ 공공비축미 및 피해벼 매입 관리, 품종검정 추진을 위한 지자체, 농협, RPC 사업자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 협조 체계 구축 및 협의 실적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달성도는 높으나 쌀 해외원조를 제외한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이 보통이거나 낮은 수준임</li> <li>○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높으나, 해외원조 지표를 제외한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이 보통이거나 낮은 수준임</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수급안정제도 마련으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였고, 정부양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쌀수급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공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부수적 효과도 발생함</li> <li>○ 수급 대책 및 정부양곡 관리, 쌀소비 촉진 등은 향후 기대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판단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요자인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장치”의 제도화와 공공비축 피해벼 매입, 품종검정에 대한 의견수렴,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이 있으므로 우수하다고 판단됨</li> <li>○ 배송서비스, 포장디자인 등 구체적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논타작물 자급기반 확충) 벼 대신 콩 등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콩 등 식량안보 취약품목 자급기반 확충
  - 쌀값 회복 기여, 재고보관비 등 재정절감(약 2,551억원) 효과 발생
- (잡곡 생산기반 확충) 전문생산단지 중심의 집중지원으로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기능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보급종 공급, 재배안내서 작성, 정부비축, 현장중심의 R&D 중점 추진
- (수요기반 확대) 공공급식 등 대량수요처 확보를 통한 잡곡류 수요기반 확대로 식량수급 안정성 도모
  - 국산 밀·콩 소비확대를 위해 국방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군납 튀김가루, 된장·청국장 원료를 국산으로 전환·확대하여 공급 추진
- (국산 밀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11.18.)」 수립
  -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자급기반 확충 및 소비기반 확산 추진
- (잡곡 소비 활성화) 언론 매체(방송, 신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여 잡곡에 대한 소비자 관심 및 실질적인 소비 유도
  - \* 방송 3회, 언론 1회, 슬로건 11건, 간편레시피 11건 최종 선정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밭 식량작물은 소규모·분산화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환경 및 산지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생산기반 취약
- 잡곡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요기반 확대를 중심의 정책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규모화·전문화된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 대량수요처 확보 등 소비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요 잡곡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책이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잡곡류 재배면적은 매우 적절하며, 잡곡류 수입물량은 국내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수입량 자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실제 보다 작게 보여질 수 있음</li> <li>- 잡곡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국산 사용을 확대하는 직접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진행중으로 12월 완료예정인 과제를 일부완수로 평가했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잡곡류 생산 및 수요 기반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및 연관정책과의 협업도 잘 이루어짐</li> <li>- 생산자, 종자원, 농진청, KREI, 국방부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 실적과 성과 도출</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목표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잡곡류 재배면적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입물량의 경우 실적추정치를 평가한 결과 달성 전망</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곡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배 농가 소득 증대, 쌀값 회복, 식량 자급률 향상 등 정책효과가 우수함</li> <li>○ 성과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 집중</li> <li>○ 상위 목표(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균형 도모로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 밀, 감자 등의 관계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 수렴 및 유통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산자, 소비자, 관리자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함</li> <li>○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함</li> </ul>

## (1) 평가결과

- (간척농지의 다각적 활용) 간척농지에 수도작 외 타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해 쌀 수급여건 개선 및 식량자급도 달성에 기여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시행계획’을 수립(‘20.1월), 간척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간척농지 임대시 타작물 재배 20%이상 의무화 및 임대기간 연장(3→5년) 등 지원정책 추진으로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
    - \* 최근 3개년 간척지 타작물 재배율 : (‘18년) 37.2% → (‘19) 39.6 → (‘20) 42.4
- (우량농지 조성)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고 가뭄·수해 등 재해에도 안전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 구축에 기여
  - 새만금 등 9개 지구 농지조성 10,183ha, 경지재정리 596ha, 방수제 7.9km 용·배수로 124.9km, 양수장 8개소 조성
  - 새만금위원회(11.24)를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수량, 수질, 염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적안 마련(~’21.2월)
  - 전북·충남지역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경지(8,761ha)에 영농불편 해소 및 안전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20. 8월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 (재해예방) 배수개선,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등 재해 예방사업으로 안전영농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식량수급 기반을 마련

- 최근 5개년 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된 시·도의 농경지 침수피해 행정조사 결과 사업 완료지역(12개 시·도)에서 피해 미발생
  - 우기 이전 준공 가능한 시설물 등을 중점관리대상(128지구 중 68지구 선정)으로 선정·관리하여 조기 준공 및 임시가동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 기존 논 위주로 이루어지던 배수개선사업을 타작물 재배지역까지 확대
- 집중호우 등에 대비 삽교방조제(배수갑문 설치 등), 이동저수지(제당 증고 등) 및 불갑저수지(보조 여수로 설치 등) 치수능력 확대로 재해위험 경감
- 집단화(50ha 이상)된 논에 용·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밭작물 재배가 가능(논·밭 전환 가능)한 고생산성 범용농지 조성 시범사업 실시('20년 신규)
  - 쌀 생산 조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및 식량수급 대응능력 제고
    - \* 50ha 4개 지구(부창(강원횡성), 후미(충북 음성), 옥성(전북 김제), 수곡(경남 함안))
- 취약기간별 선제적인 점검,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비상가동훈련·재해취약 저수지 긴급 정밀점검 등 적극적인 재해대응 노력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통계 등 외부환경 분석 및 간척지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기관간 협의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소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
  - 관련 사업의 주요 소비자는 지역 농어업인, 지자체 등으로서 전국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관련 심의위원회에 농어업인을 포함,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 등 노력하였으나 참여율이 낮았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간척지 임대제도 개선, 토지이용계획 수립, 재해예방사업 등 정책 추진 시 전체 정책소비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통계, 정책효과 등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충실히 분석하였고, 간척지 실태조사, 배수개선 재해상황 검토 등 기본적인 조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근거 및 체계적인 분석은 다소 미흡</li> <li>○ 성과지표는 과제 이행에 대표성이 있으며, 산출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적절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25개 세부 추진 일정 관리 항목을 모두 완료함, 다만, 새만금관련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 애로,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li> <li>○ 새만금 및 화옹·시화간척지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함, 다만, 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등 전반 논의 의제 발굴 및 협의결과 실행을 위한 적극성은 다소 미흡</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적극성이 다소 낮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척농지의 다각적 활용, 우량농지 조성, 침수피해 예방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가 발생하였고, 장기적인 기대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됨</li> <li>○ 과제 수행을 통해 식량 수급의 안정성 확보 등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소비자 대상 아닌 사업 관계자 및 기관간 협의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li> <li>○ 외부평가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이행과 추진력이 다소 부족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업재해보험) 신규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정책수혜자 확대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19) 38.9% → ('20) 45.2%
  - \*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 ('19) 93.3% → ('20) 92.6%
- 대상품목 신규도입(5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참다래:전국, 단호박:경기전역)등 통해 보험사업 정책수혜자 확대
  -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수 : ('19) 62개 → ('20) 67(팥·살구·시금치·보리·호두 추가)
- (복구지원) 집중호우, 태풍(3차례)으로 발생한 농작물(158천ha)·가축 피해 등에 대하여 194천 농가에 재해복구비 2,682억원 지원, 신속한 영농복귀 기여
- (지원 현실화) 복구비용 지원단가 적용항목 총 174개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인삼) 추가로 신설하여 현실화율 제고
  -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 ('17) 20 → ('18) 35 → ('19) 21 → ('20) 123
- 농업인에게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항목(농약대, 대파대) 중심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농가의 재해대응력 강화
  - \*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수준에서 100%로 인상
  -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 ('17) 66 → ('18) 72 → ('19) 73 → ('20) 83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국고지원 강화\*\* 및 농업인안전보험 연계상품\*\*\* 판매촉진에 따른 가입률 제고
  -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 ('19.11) 64.2% → ('20.11) 66.5%
  - \*\* (당초) 모든농가 50% → (변경) 일반농 50, 영세농 70
  -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 할인('18~)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정 보험료 부과, 보험 선택권 확대 등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험료 할인·할증 현실화, 보험요율 산정단위 세분화, 자기부담비율 체계 개편, 특약 다양화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반영이 우수함 ○ 외부환경분석, 업계 동향 및 해외사례 분석, 정책효과 분석, 현장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함 ○ 자체 계획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추진계획 및 분기별 이행과제 설정 등이 충실함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집행됨 ○ 타 기관과 협의, 정보공유, 비교 점검 등이 우수함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도전성 높음 ○ 목표치 설정이 농작물재해보험은 ‘높음’, 가축재해보험 ‘낮음’, 농업인안전보험 ‘보통’으로 판단됨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 재해 빈발에 따른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역할이 우수함 ○ 수입안정효과, 실질소득 기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기여 ○ 정책수혜자 확대, 보험 가입률 증가 등 예상했던 정책 기여도가 나타남 ○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청취가 인정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우수함 ○ 토론회, 협의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있음 ○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 ○ 개선방안의 정책 실효성 제고로 농업인에게 재해위험 안전망 제공 등이 우수함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용수공급) 상습물부족지에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 수계 연결 등을 통한 수자원 효율적 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가뭄대응능력 제고
  - 수리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전체 60지구(22천ha) 중 10지구(4.8천ha) 준공(395억원)
  - '17년 가뭄 극심 지역(경기·충남·전남 등) 수계연결 추진(9지구, 570억원)
  - '20년 영농대비 물부족 우려 저수지 27개를 대상으로 목표량(6,022m<sup>3</sup>) 대비 123% 확보(확보량 7,400m<sup>3</sup>)
- (수리시설 안전관리) 저수지, 방조제 등 노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유지 및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재해 취약시설 보강 및 재난대응 훈련 실시 등으로 재난피해 예방 및 초기 재난 대응 능력 제고
  - \* ('20) 정밀점검 702개소, 정밀안전진단 221개소 실시
  - 저수지 관리계획 마련(12월)으로 노후시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농업SOC 디지털화) ICT 기반의 SOC 수자원분야 디지털 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수자원 관리효율 증대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시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및 재해예방계측사업을 디지털 뉴딜 10대 과제인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에 포함
  - 한국판 뉴딜사업 신청, 추경예산을 증액(206억원) 확보하여 사업 기간 단축('30→'25년) 및 계측기 확대 설치 등 사업 가속화
  - \* 농업용수관리자동화 : '20년 시행중인 17지구 중 7지구 준공(당초 '30년→'25년, 5년 단축)
  - \*\* 재해예방계측 : '20년 저수지 166개소(변위 136, 누수 30)에 계측장비 설치

- (수질개선)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수질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업용수원 안전성 확보
  - 수질 IV등급 초과 87개 저수지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및 ‘수질관리 협의회’ 등을 통해 상류유역 오염원 관리
  - 한국판 뉴딜사업 신청, 추경예산을 증액(132억원) 확보하여 수질 오염 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 추진
    -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시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그린뉴딜 과제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에 포함시킴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① 수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적 지표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본 관리과제 ‘Ⅱ-2-②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임
  - 홍수 및 침수피해 예방 등은 타부서의 ‘Ⅱ-1-③ 간척지활용 등을 통한 농업생산기반구축’ 관리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 해소율’, ‘치수능력 확보율’ 등의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 소관 ‘Ⅱ-2-②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관리과제에서는 수리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재해취약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기능 유지를 위한 내용을 성과 관리중으로, 타부서의 관리과제사업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② 사전분석 및 의견수렴 반영절차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계획수립 반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상기 미흡 원인분석 결과 ②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1년도에 외부환경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수립하고, 다양한 협의체 및 농업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통계, 외부환경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li> <li>○ 갈등요인에 대한 사전분석 및 이해관계자/전문가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간 협의 실적이 있으며,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함</li> <li>○ '20년 수해로 인한 농업용수 관련 시설 피해 복구 관련, 수자원공사 등과의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용수급수율, 수리시설 개보수율, 수질개선사업 추진율은 누적지표로, 19년 실적기준으로 적극성 판단</li> <li>○ '이용자 만족도' 지표는 적극성은 1% 이하로 낮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공급 안정을 위하여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li> <li>○ 디지털, 그린 관련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예산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나 당해년도 정책효과나 주도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려움</li> <li>○ 용수시설 통합관리시스템(TOMS) 구축·운영으로 효율적인 농촌용수 관리 및 재해 예방 기대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합동점검, 지역주민 설명회 등으로 정책소비자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li> <li>○ 문제점 원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요구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요령 마련(20.5월)
  - ASF역학조사 중간결과 ASF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된 주요 원인이 사람·축산차량에 의한 유입이 큰 원인으로 추정
  - \* 9개소는 사람(농장출입자)·차량·야생조수류에 의해 ASF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독립적·산발적 발생, 5개소는 축산 차량을 통해 전파 추정
  - 위험지역인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내부울타리 설치 등 시설개선 후 제한적 출입 허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근거를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에 마련(10.7, 개정·공포)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은 ASF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①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②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해당
- ASF 중점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방역 실효성을 높이는 지표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과 설치 의무를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에 마련(10.7, 개정·공포)

(8개 시설) ①내부울타리, ②외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충망,  
 ⑥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 방역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한 과태료 신설·강화하는 방안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마련(5.5, 개정·공포)

- (신설) 고장나거나 훼손된 방역시설을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농장 방역관리책임자 방역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신설
- (강화) 농장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시 과태료 강화

구분	주요 내용	과태료 기준(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3회	
신설	○ 고장(훼손)난 방역시설 방치	500		750		1,000	
	○ 농가 방역관리 책임자의 방역교육 미이수	300		600		1,000	
강화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종전	개선
	○ 농장 방역관리 책임자 미지정	200	<b>500</b>	400	<b>750</b>	1,000	<b>1,000</b>
	○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가 교육 허위 신고	100	<b>300</b>	200	<b>600</b>	500	<b>1,000</b>
	○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 위반	100	<b>500</b>	200	<b>750</b>	500	<b>1,000</b>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축종별 농장단위 방역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수립 필요
- 정책수립을 위한 계획단계에서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 정책수요자인 국내 축산농장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방역시설 보완과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활용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방역정책 수립단계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
-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와는 별개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반 확충사업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된 방역계획 수립함</li> <li>○ 방역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임.</li> <li>○ 북미, 네덜란드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농장 시서설과 비교하여 사전조사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용역, 전문가심포지엄등 유형별 조치방안을 마련 함</li> <li>○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도입,, 양돈농가 방역시설기준 도입, 미이행농가 처벌등 포괄적이고 대표적 성과지표임</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료된 과제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 필요</li> <li>○ 여러 관계부처의 일원화된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축산농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함.</li> <li>○ ASF중양사고수습본부 운영, 부처합동 ASF방역 대응 TF운영 등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체계 운영 함</li> <li>○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한 것으로 판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성을 고려하기 힘든 지표이지만 축산농가와외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규칙 개정을 한 것으로 보임.</li> <li>○ 3개지표 모두 정성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li> <li>○ 성과지표가 정량평가는 부적합하고, 정성적 지표는 성실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법 개정된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li> <li>○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축산물 공급 기반 마련으로 향후 기대효과 높음</li> <li>○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향후 기대 효과가 높음</li> <li>○ ASF 발생기간 단축 및 피해규모 축소 등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이 인정되나 최근 전국단위로 확산되는 AI 문제에 대한 정책 효과 측면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책소비자 의견 수렴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함</li> <li>○ 현장과의 소통으로 장마철 방역대책 마련과 접근 취약지역 소득자원 지원 시행</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구제역 대응력 강화) 백신 항체양성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취약분야를 집중관리\*\* 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을 추진, '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구제역이 '20년에는 비발생

\* 돼지 항체양성률 : ('19년) 75.8% → ('20년) 88.3% (12.5%p↑)

- \*\* i) 구제역 전파·확산 위험요인인 가축분뇨에 대해 특별방역기간('20.1~2월, 11~12월) 권역외 이동제한, ii)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수탁사육·임대농장 점검, iii) 백신접종 미흡농가 개선 시까지 집중 점검·검사 등

- 특히, 정책환경변화(코로나19)를 고려, 비대면 방역 교육홍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구제역 대응력량 강화

\* 방역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 유튜브에 배포('20.8~12월), 축산농가 및 방역공무원의 높은 참여도와 호응 확인

- (농업인 소득안정)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재정지출(살처분, 소독 등 방역비용)\* 및 축산농가 손실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생산·공급 안정에 기여

\* 구제역 발생건/피해액('14년 이후) : ('14~'15) 188건/652억, ('16) 21건/126억, ('17) 9건/98억, ('18) 2건/64억, ('19) 3건/126억, ('20) 0건/0건

- 연관산업(가공·유통 등)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구제역 청정국 인정” 추진 요건(구제역 비발생)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물 수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 추진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통계현황, 사례, 정책효과 등 사전조사 분석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우수</li> <li>○ 성과지표가 항체양성률, 지침개정, 혈청검사 달성률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정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결과중심 지표로 판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을 거의 완수했으며, 코로나19 발생 등 외생변수에 따른 일정 변경 등이 인정됨</li> <li>○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행안부, 환경부) 및 외부(생산자단체 등) 협업 및 협업체계(구제역특별 방역대책 TF, 방역심의회, 백신전문가협의회 등) 운영도 적절</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은 보통이며, 모두 달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방역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ICT활용 가축분뇨 관리, 비대면 교육·홍보 등으로 '19.1 이후 비발생 유지 등 성과 도출</li> <li>○ 정책과제 추진을 통한 구제역 방역 지속가능성 향상 및 향후 기대 효과가 우수하며, 상위목표인 재해대응력 강화로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li> <li>○ 개별 농가의 방역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농가별 방역수준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한 좀 더 세밀한 업무추진 계획과 실천이 필요</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관련 규정 개성을 위해 정책수요자 대상 의견수렴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로 정책 효과 도출</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예찰, 점검, 취약 분야 관리, 제도개선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대책 적극 추진
  -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위협시기 대비 방역대책 추진 등 AI 방역관리 노력
- '20.10월까지 AI 비발생 유지를 통해 상위 목표인 재해대응력 강화와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 기여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AI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1월 이후 AI 발생 확인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이후 가금농장에서 산발적 발생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시설 미구비, 방역 수칙 미준수 등 방역 미흡 사례 확인
- 과거에 비해 방역수준 향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일부 방역정책 (사육제한 등)의 방향성에 대해 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권고
  - 실태 조사를 통해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 시행 중인 방역대책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부분은 제도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추진
  - 관계기관·지자체·단체·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제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조사가 충분하고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신뢰도 높은 자료로 판단</li> </ul> </li> <li>○ 향후 지표에 농가 방역실태 조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 점검 추가 권고</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고, 타 기관과의 협력 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도 가상방역훈련(CPX) 추진이 거의 완수 수준 인적</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중심 방역대책으로 AI 비발생 효과 인정</li> <li>○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실적 성과지표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성 우려</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비발생 유지 노력 인정, 축산 안정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성 질병 예방으로 농가 소득 안정 기여</li> </ul> </li> <li>○ AI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시 예찰 및 조기 감시를 위한 정책 효과 우수 판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회, 심포지엄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 대비 방역대책 마련 등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li> </ul> </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20.9월 강원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그간 마련한 선제적 체계구축과 신속한 초동 조치로 최단기간(2일) 내 확산 차단
  - ASF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전세계적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국내 확산 발생시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손실 발생
    - \* 확산 차단을 통해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 및 국민 보건 증진 도모
- 화천 발생 시 ①긴급살처분, ②일시이동중지명령(72시간), ③권역별 돼지·분뇨·차량 통제, ④군 제독차량 등 소독자원 총 동원하여 발생지역 도로와 농장 집중소독 등 조치
  - ※ ('19년) '19.9.16~10.9(23일)간 14건 발생(446천두 살처분)
  - ⇒ ('20년) '20.10.8~10.9(2일)간 2건 발생(4천두 살처분)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업과 대응 필요
- ASF 차단을 위한 돼지·분뇨 통제 등의 방역조치 시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점 발굴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사례 분석, 통계분석, 갈등요인,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논의, 외부환경 변화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도표, 사례, 분석을 통해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li> <li>○ 상시 추진 계획, 분기별 추진 계획을 기술하고, 추진 수단 및 추진 목표까지 정확하게 과제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li> <li>○ 성과지표는 대표성이 있으며,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대비 추진 일정이 모두 완료됨</li> <li>○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의 및 회의, 심의를 통해, 방역강화, 농장 피해 최소화, 업무효율 제고 등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F가 최단기간에 2일 만에 2건으로 마무리, 살처분 농장수도 작년 261호에서 5호로 감소하였음. 전반적인 방역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효과성이 엇보임</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통제에 확산 방지, 야생멧돼지 차단 등 다양한 정책이 효과가 발생</li> <li>○ 상위 목표인 농업관련 재해 대응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차단방역시설 완비 등 기여한 정도가 우수하다고 판단</li> <li>○ 과업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야생돼지 유래 질병의 발생과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과 공로 인정됨</li> <li>○ 위험지역 내 방역수준이 낮은 농장에 대한 관리정책에 집중할 것과 타 부서와의 논의를 통하여 야생돼지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방안 도출이 시급해 보임</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제안에 따른 개선 방안등은 마련하였으나, 정책소비자에게 미치는 과급효과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함</li> <li>○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에서 농장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온라인농산물거래소(비대면 B2B 거래) 시범 운영 결과, 대안유통 경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성과목표도 5% 초과 달성\*

\* 성과지표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실적(천톤) : '20년 목표 18 → 실적 18.9(5%↑)

- 32개 도매시장 상장거래 기준, 양파 4위, 마늘 2위 시장으로 성장



\* (양파) 동기(11.20기준) 가락시장 반입량의 12.5%, 가락 농협공판장 취급량의 4.1배  
(마늘) 동기(11.20기준) 가락시장 반입량의 16.1%, 가락 농협공판장 취급량의 14.5배

-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경우와 비교 시, 유통비용(양파, 12%) 절감으로 출하자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 상생의 유통생태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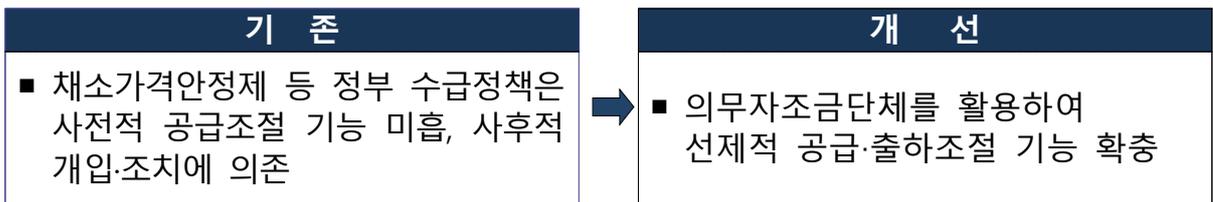
\* (출하자) 높은 낙찰가(+60원)와 낮은 수수료(가락 5%, 온라인 3) 등으로 수취가 77원/kg 상승 추정

\* (소비자)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가 62원/kg 인하 효과 추정

- 낮은 가격변동성(주별 가격변동률, 가락 7.1% > 온라인 5.5)과 함께, 시장 내 경매대기(7시간) 및 유찰품 저가판매(회차우려) 일소(一掃), 역(逆)물류\* 등 오프라인 시장의 문제 개선

\* 비수도권 중도매인 취급 비중 : 온라인 61%, 공영도매 42

- 양과,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조기에 완료(7.24)하고, 농수산물 자조금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법) 의무거출금 미납자를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무자조금단체가 필요로 하는 농업 경영체DB 등 정보제공 근거 마련(11.20 시행)
  - \* (시행령) 수급조절체계 완비를 위해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9.2~10.12,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중)
  - \* (고시) 거출액 일정 비율을 '수급안정 예비비'로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11.3 시행)
- 양과·마늘 품목은 정부 중심의 사후적 수급조절 방식에서 생산자 중심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 채소가격안정제 프로그램 중심의 정부 주도 수급안정 정책을 보강하여 의무자조금단체 기반의 자율적 수급조절 프로그램으로 전환



- 통합마케팅 조직 대상 원물확보자금, 유통시설·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로 농가소득증대 등 유통효율화 기여
  - 산지유통종합평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10월)
  - 참여조직의 통합조직 원예농산물 출하 비중이 전년 대비 4.6% 상승\*하는 등 산지조직의 농산물 유통·마케팅 경쟁력 강화
  - \* ('17) 42.3% → ('18) 43.8 → ('19) 45.8 → ('20) 47.9(전년 대비 4.6%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가·수의매매 확대, 온라인경매 활성화 등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분석·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과제 추진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li> <li>○ 대표성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측정자료 신뢰 가능</li> </ul> </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 16건 모두 완수</li> <li>○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정책 간의 협업 체계가 갖춰짐</li> <li>-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를 통한 과제 수행</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성과지표의 적극성 정도는 모두 보통</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추진 결과 유통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거래소는 도매시장 대비 양과 4위, 마늘 2위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양과·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됨</li> <li>* 다만, 일부 정책효과는 계량적으로 제시되지 못함</li> </ul> </li> <li>○ 향후, 대안유통경로 확대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거래소는 도매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대안유통경로</li> <li>- 의무자조금을 통한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기대</li> </ul> </li> <li>○ 온라인거래소를 통한 유통효율화와 의무자조금을 통한 수급안정 기반 조성 등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요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추진함</li> <li>○ 전년도 지적사항 온라인경매사업 추진 실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5.3배('19년 6.4억원 → '20년 33.9억원)</li> </ul> </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업관측 고도화,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추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 발생(사회경제적 후생 증진 1,585억원)

## 수급조절사업 효과(20.10월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합계
농가 소득 지지	232.1	180.0	81.7	863.5	-	1,357.3
가계 지출 절감	58.5	5.4	109.3	-	54.0	227.2
품목별 사업효과	290.6	185.4	191.0	863.5	54.0	1,584.5

※ 2020년 수급안정사업 효과측정 연구용역(요약)

- (관측 고도화) 실측기반 조사체계 변경, 조직 개편 등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 개선을 통해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정보 이용률 상승

< 실측 조사 도입에 따른 농업관측 신뢰도, 이용률 전반적 상승 >

\* (조사대상) 표본 농가(600명), 농업 관련 기관(400명)



-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①수급안정대책반 중심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명절 성수기 10대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 민생안정 지원  
⇒ 10대 성수품 도매가격지수\* : (설 대책기간) 105 / (추석 대책기간) 103

\* 대책반 운영(3주간) 전 평균 가격지수를 기준으로 대책반 운영기간 가격지수 산출

⇒ 성수품 공급실적 초과 달성 : (설 대책기간) 30.9% / (추석 대책기간) 17.4%

②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과잉 예측정보에 기초한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 추진으로 마늘 가격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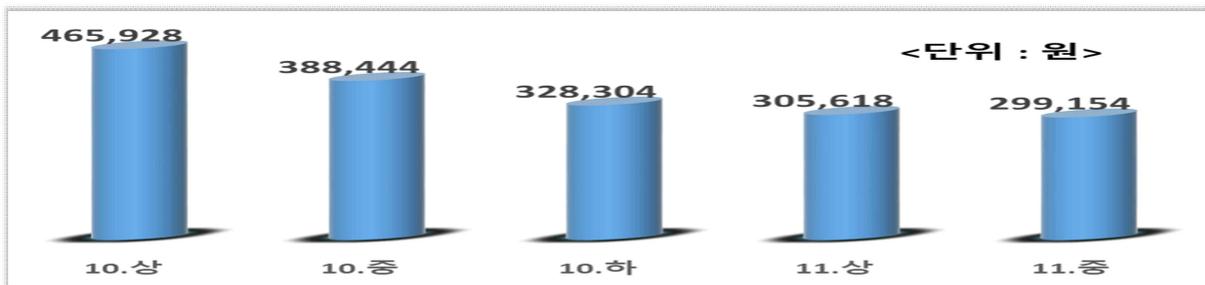
⇒ 전년 폭락했던 ‘20년산 마늘 수확기 산지 가격 회복으로 농가 경영안정 지원

\* 신지공판장(청녕, 합천) : 7월 2,998원(전년 97%↑, 평년 19%↓), 8월 4,397원(171%↑, 20%↑)

\* 깎마늘 가격 : 7월 5,452원(전년 27%↑, 평년 13%↓), 10월 6,883원(73%↑, 9%↑)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생산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수급위를 통해 현장성 있는 김장대책을 수립, 물가 안정 효과발생

김장비용 추이(aT 조사결과)



\* 김장비용 : 김치 20포기 기준,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생강.갓.미나리.굴.젓갈.소금 등 13개 주요 품목 합산 비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일정 중 1개 미완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화되면서 수급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 개최 취소

○ (성과지표 달성도) 일부 성과지표\*는 정성적 결과 지표로 일정 수준 도달시 추가적인 목표치 상향조정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음

\* 농업관측 만족도 목표치 : 83.8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대면 영상회의, 서면 회의 등을 도입하여 코로나 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단계부터 위원들에게 공지 하는 등 중앙주산지협의회 추진 프로세스 개선 필요

○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하고 목표 상향조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발굴 검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통계분석, 관련 연구, T/F 운영 등을 활용하였으며, 과제 추진계획이 적절</li> <li>○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체적이며 적절한 추진계획이 분기별로 체계적으로 수립</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계획 대비 미완료 과제 1건 이외 모두 완료</li> <li>○ 위원회, T/F 등 관련 협의체가 구축되어 계획대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li> <li>- 실측정보를 활용한 논문경진대회 추진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1은 3개년 평균 실적치의 101% 이상, 110%이하로 적극성은 보통</li> <li>○ 성과지표 2는 3개년 평균 실적치의 110% 이상으로 적극성이 높음</li> <li>- 성과지표 1, 2 모두 목표치 100% 이상 달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체계 변경을 통한 정확성 제고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채소류 수급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li> <li>- 채소류 가격 안정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거두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수급 안정 목표에 기여</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가 우수</li> <li>○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안 마련, 국감지적 사항을 실측조사를 통해 해결</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로 자생력을 확보
- 코로나19 대응 민·관 합동 모니터링 및 TF 가동을 통한 신속한 대응
- 관측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예측 정확도 제고로 가임암소 사육 증가세 완화 및 모돈수 감소 등 실적 우수
- 관측기간 확대를 통해서 가축입식 및 출하시 예상 생산량을 농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달성도의 정량적 성과 확인을 위한 달성 수치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축산자조금 체계를 활용한 자율 수급관리 체계 구축 미흡
- 수급조절협의회 등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미흡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민간 자율의 수급관리에 대해 수급조절협의회 정례화 및 협의회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 사업 연계 필요
- 수급조절협의회 등 효과적 운영 방안을 위해 매뉴얼 등 마련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방법과 추진 시기,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항 등 구체성 다소 미흡</li> <li>○ 관측제도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이후의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됨</li> <li>○ 과제추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관측제도 개선, 수급안정을 위한 분기별(월별) 추진계획 구체성 다소 부족</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관측 개선과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의 노력이 우수하며, 코로나19 대응 민·관 합동 모니터링 및 TF 가동을 통한 신속 대응이 우수함</li> <li>○ 관측정보 현장 확산에 대한 수행 근거가 미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인 관측 분기보 발간, 협의회 운영 등으로 기술하고 있음</li> </ul> </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성과지표 모두 그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의 적극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측정보 제공방식 개선, 수급조절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주요 사업 추진 노력이 있었음</li> <li>○ 관측제도 개선으로 공급 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한 가임 암소 사육 증가세 완화 및 모돈수 감소 등 수급안정 달성 및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정책효과 우수</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측, 수급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관측모형 개선, 정보활용 강화, 수급안정 관련 환류 등 노력</li> <li>○ 전년도 지적사항이 없어 별도 환류노력이 불요했으나,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환류노력을 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및 피드백 중시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축산업 허가제 강화) 개정 축산법('19.8)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사육기준 개선
  - 축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 확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축산농가 점검·관리 강화) 중앙-지자체-관계기관 상시점검·관리 체계 마련, 농가의 자발적 참여 제고 등을 통해 사육밀도 준수율 개선(5월 76.2% → 9월 91.5%)
  -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추출 시스템 마련,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 등 점검 강화
  - 사육밀도 계산 프로그램 제공, 자가진단안내서 제작·배포 등을 통해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축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거점도축장의 일관경영을 통한 유통단계 간소화 및 유통정보 활용 확대로 유통 투명성 제고
  - 거점도축장 육성 및 비대면 거래인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도입 기반 마련(연구용역, 예산확보 등)
  - 축산유통정보(eKAPePia), 거래증명통합포털 등 유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 분야 활용 확대,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 운영(정부혁신 행안부장관상 수상)
  - 국내산·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경로·생산량·가격 등을 조사분석, 축산물 거래 시 각종 인증·증명서류를 간소화한 거래증명통합 서비스 제공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획수립 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및 과제별 추진 일정 마련
- 돼지농가 외에도 축종별 또는 대표 지수 개발 등 허가제와 관련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OT 분석 등 이상적인 방법으로 대내외 여건에 대해 조사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li> <li>- 분석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li> <li>○ 목표, 추진 계획 반영, 추진일정 및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li> <li>- 월별, 과제별 구체적 추진 계획 필요</li> <li>○ 돼지농가 외에도 축종별 또는 대표 지수 개발 등 허가제와 관련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li> <li>○ 가축생산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로 사회적가치 가점</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추진일정이 대부분 완료</li> <li>○ 관계기관간 협업 체제가 구축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달성도가 대체로 양호</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효과의 발생 정도 및 상위 목표에서의 기여가 우수</li> <li>○ 축산업 관련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과 현장 점검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실행</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F, 현장점검, 부처 및 관계자 협의 등 의견수렴</li> <li>○ 정책환류 노력이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짐</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성 확대,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확보, 통합마케팅 및 계약 재배 등을 통한 수급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보장에 기여

- (현대화 시설 보급) 노후시설의 현대화자동화스마트화(600ha)를 통해 시설현대화 비율 23.0%(전년 대비 5.2% 증가)를 달성하고, 관계기관 협업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농업인 난방비 부담 경감

\* 시설원에 주요품목 난방비/경영비 비중은 '19년 21.1%로 평년 대비 18.2% 감소

- (과일간식 선호도) 과일간식 지원으로, 과일섭취 경험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 선호도 제고(86.4점으로 목표 달성)를 통한 미래소비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14개소)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

\* 14개 가공업체에서 337명 채용(단기일자리 포함)

- (통합마케팅 활성화) 18개 과수산업발전계획 시행주체의 통합 마케팅 취급액 증가율은 기준년도('16년) 취급액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과수거점APC 평균매출액 성장률도 115.5%로 목표 달성

\* (통합마케팅 취급액, '20) 1,183,726백만원, (거점APC 평균매출액, '20) 29,385백만원

- (계약재배 활성화) 주요품목 계약재배 물량 비중을 기존 7.1%에서 7.3%로 상향 설정(전년비 2.8%↑)하였으며, 긴 장마·태풍 등 기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

\* 과실·과채류 연도별 계약재배 물량 : ('17) 125톤 → ('18) 150 → ('19) 164 → ('20) 180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상품화 비율 등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표 보완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넓은 사전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작성하였고 분기별 계획을 수립</li> <li>○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며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과제의 성과 측정에 적합한 대표 지표를 선정</li> <li>○ 목표치가 측정 가능하고 신뢰성 있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일정이 충실히 관리되고, 계획을 준수함</li> <li>○ 관련기관 협의체가 구축되었으며,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협의 노력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음</li> <li>○ 2, 4번 지표의 경우 적극성을 우수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나, 1번은 3개년 미만의 실적으로, 5번은 신규 지표로서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정</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잘 제시되었으며, 농업인 소득 증대, 경영안정,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정책의 긍정 효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li> <li>○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정책효과 발생이 기대됨</li> <li>○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활성화 등 상위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실태 점검, 설명회,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우수</li> <li>○ 외부기관 문제 제기를 정책 개선에 반영</li> </ul>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소비자 접근성 제고, 꽃 소비 생활화 확산, 화훼 품질관리 강화, 꽃 생활화 체험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꽃 소비 생활화 확산에 기여

○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가 꽃을 쉽고 편하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전문점(마트, 편의점 등) 및 온라인(공영홈쇼핑·꽃 전문쇼핑몰 등) 등 **화훼 판매채널 확대**

- 유통전문점 내 화훼 판매채널 확대로 flower in shop 설치 개소수는 전년(4,545개소) 대비 **136.8% 증가한 6,099개소로 목표(5,000개소) 보다 큰 폭 초과 달성**

\* 화훼 판매채널 확대 실적 : ('18) 3,050개소 → ('19) 4,545 → ('20) 6,099

○ (꽃 소비 생활화 확산 홍보) 유명 유튜버 등 참여 꽃 부케챌린지, SNS활용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꽃 생활화 공모전(3회, 4천건 접수), 양재 온라인 플라워 페스타(3.6만여명 참여) 등 **대국민 꽃 생활화 홍보로 국민 관심도를 제고하여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 유도**

\*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부케챌린지'(쓰양·유재석 등 60여명 참여, 2.7백만여명 조회), '카카오 같이가치' 연계 SNS참여 이벤트를 통한 대구·경북 의료진 꽃 선물(1만여명 참여)

-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반적인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활용 화훼 소비 비중이 **37.5%로 목표(27.0%) 보다 138.9% 초과 달성**

⇒ 행사·선물용 화훼 소비구조 중심에서 생활용 소비로 전환을 유도하여 **생활용 화훼소비 비중 증가하는 등 꽃 생활화 확산**

\* 생활용 꽃 소비 비중 실적 : ('17) 21.3% → ('18) 26.9 → ('19) 31.7 → ('20) 37.5

- (품질관리 강화) 꽃집의 품질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꽃을 재구매 할 수 있도록 착한꽃집 확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맞춤형 신화환을 제작·배송 할 수 있도록 화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
  - 화원의 영세성, 서비스 의식 등 열악한 화원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착한꽃집 선정 결과, 전년도(604개소) 보다 6.0% 증가한 640개소로 목표(634개소) 초과 달성
    - \* 착한꽃집 선정 확대 실적 : ('18) 531개소 → ('19) 604 → ('20) 640
    - ⇒ 화훼의 품질관리 및 서비스 향상 도모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꽃 소비 생활화 유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화훼소비촉진 홍보와 소비관련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체와 긴밀하게 홍보가 소비로 직결되는 화훼소비 촉진 방안 마련
- 재사용화환 유통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신화환의 장점 (꽃나눔 가능, 친환경 화환 등)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건 및 사례분석, 외부환경 변화분석, 소비동향 조사 등의 분석과 의견수렴이 있었으므로 우수하다고 판단</li> <li>○ 생활용 화훼비중 증가율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지표임</li> <li>○ 신화환이 무색하고도 남은 만큼의 시간이 지나버린 신화환 보급확산 과제와 ‘재사용화환 표시제 확산’을 멈추거나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아쉬움</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그 기관과의 뛰어난 협업 능력을 보임</li> <li>○ 코로나19대응 화훼소비 증가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잘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며,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의 노력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 화훼소비 비중 증가율과 착한꽃집 선정확대는 적극성이 인정되고, 유통전문점 화훼 판매채널 확대는 적극성이 높음</li> <li>○ 목표한 성과지표를 모두 100%이상 달성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훼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농가소득 지원 등을 통하여 실지로 화훼류 거래량, 가격이 평년수준 회복되는 등 정책적 효과가 결과를 나타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보인다고 판단됨</li> <li>○ 지속성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개선은 여전히 다소 미흡</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대응과 관련하여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충실히 진행함</li> <li>○ 전년도 자체평가시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외부 지적사항도 개선하는 노력이 인정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공익직불제 시행) 농업계의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속 추진된 공익직불제를 마침내 5.1일부터 시행
  -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20.2월)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공익직불제 시행
  - 신청·접수(~6월),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10월)을 거쳐 11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소득안정) 공익직불제를 통해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논·밭 형평성 제고
  - '20년 첫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113만ha)에 총 22,769억원 지급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
    - \* 제도 개편 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액('19년 1조 2,356억원) 대비 1조 413억원 증가(84%)
  - 특히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여 개편 전에 비해 중소규모,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19: 10.6% → '20: 22.4%), 밭 수령액 비중('19: 16.2% → '20: 28.3) 증가
  - 공익직불금 조기 집행(연말 → 11월)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 해소에 기여
    - \* 다수 농업인단체에서 환영 성명 발표(한농연, 쌀전업농, 농축산연합회)

- (공익증진) 준수 의무 확대 및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도모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인 준수사항 확대(3개→ 17개)
  - 준수사항 확대 및 이행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에 기여
- (조직·인력 확충) 공익직불제 시행 및 관리기관 지정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공익직불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
  - 법률 제정('19.12.31 공포) 후 농식품부 및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기재부 심의에 대응하여 총 1개과 신설 및 28명 인원 확보
    - \* (농식품부) 기존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공익직불정책과'로 변경 및 인력 2명 증원 (농관원) '직불관리과' 신설 및 인력 26명 증원
- (경영이양직불금) 고령 은퇴농에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
  - 총 12,489ha(신규이양 787, 분할지급 11,702)에 대한 직불금 323억원을 지급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넷제로(Net-zero)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제 개편 TF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짐</li> <li>○ 하위법령 개정,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등 추진계획이 적절함</li> <li>○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개편 방향 중 하나가 영세소농에 대한 직불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li> <li>○ 성과지표가 측정 가능하며 신뢰성이 있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일정을 실적누락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수함</li> <li>○ 범정부 협업과제로 4개 중앙부처 및 1개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함</li> <li>○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기반 마련 등 추진실적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과목표를 달성함</li> <li>○ 성과지표의 적극성을 보통으로 판정함</li> <li>○ 직불제 성격상 시행 1년차에 상위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처음 시작하는 정책이 무난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 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음</li> <li>○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정책의 보완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포용성과 환경성을 강화</li> <li>○ 상위목표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망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li>○ 쌀 중심 직불에서 탈피, 다각화된 농업생산 및 국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농업 체제 개편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li> <li>○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망 확충 상위 목표에 충실하게 기여하였음</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설명회, 협의회, TF운영을 통해 의견수렴을 수행하였고, 설문조사 또한 수혜자 대상을 수행함</li> <li>○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및 준수사항 단계별 로드맵 방식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li> <li>○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됨</li> <li>○ 정책평가, 외부 지적사항 등 개선 논의와 반영이 이루어졌으나, 거대 정책의 축으로서 완전한 정책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노력이 필요</li> </ul>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농협 관련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및 조합·조합원 실익지원에 직접적 기여
  - (경제사업) `20년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매사업 일원화 등 산지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책임판매비율, 농업인 편익 증대
    - \* 책임판매비율 : ('11) 18,938억원/11.2% → ('20) 61,045/31.2
    - \*\* 농협 매입가 63,927백만원(1,155원/kg) ⇔ 도매 매입가 53,611(969/kg)
  - (조세특례)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추진을 통해 22건의 조세 특례 유지, 총 1조 6,719억원의 농업부문 편익 제공 기대
    - 또한, 자경농 거주 요건, 농어촌 주택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 등의 완화로 도시인구·자금의 농어촌 유입 촉진도 기대
  - (실익지원) 농업인 지원확대로 총 1조 9,633억원(농가당 179만원) 농가 경영비 지원 및 조합원 자격기준으로 지역조합 경영 안정 강화
    - 임원 선거 시 조합원 호별 방문금지 기간 법률(농협법) 규정 및 곤충사육농가 조합원 자격요건 신설(7월, 고시) 등 제도개선
      - ※ 특히, 중복구매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적 마스크 안정적 공급으로, 마스크 시장 수급 및 코로나 19 안정화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성과보고서 제출(11월말)까지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성과지표 설정 마련 검토
    - 또한, 성과지표가 결과중심의 체감지표임을 알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통한 환류효과 등의 근거자료 제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를 통한 추진계획의 결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li> <li>○ 농협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은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li> <li>○ 3개의 성과지표가 제도 개선의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지표로 다 구성을 하다보니 결과중심의 성과 지표에는 한계</li> </ul> </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일정을 대부분 완수함.</li> <li>○ 완수예정 일정이 있으나, 근거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완수로 판정함(추후 근거확인후 재평정)</li> <li>○ 타부처 및 학계, 연구기관(KREI) 등과의 협의회 및 T/F와 같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관련기관 협의실적 있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목표치들의 적극성을 높음으로 판단. 지표 1은 수립예정도로 달성률을 거의 달성으로 판단함.</li> <li>○ 향후 관련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2020년까지 목표했던 책임판매비율이 목표대비 낮고, 조합원 소득 역시 정체되고 있음</li> <li>○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방향 정립과 추진으로 정책효과 확대를 기대, 다만 아직 2차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대효과는 보통</li> <li>○ 향후 관련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점검회의, 위탁연구, 현장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수행</li> <li>○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이 잘 연계되어 있음. 우수</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FTA 국내보완대책)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행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업인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 (축산 경쟁력 제고)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고강도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 \* 수혜농가 모돈 당 출하두수(두/년) : (계획) 19.1, (실적) 20.1
  - (과수·원예경쟁력 제고) 생산자단체 조직화, 수확 후 관리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물류 효율화를 통한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 \*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 (계획) 33.3, (실적) 42.7
  -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 농업인 전문성 제고 및 자연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의 경영안전망 확충
    - \*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 연수(127명), 농·축산업 훈련 비자 발급(30명) 등
- (FTA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 재배 농가에 직접적 자금 지원으로 농가 피해 완화에 기여
  - (피해보전) 돼지고기, 녹두, 밤 품목 재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상함에 따라 경영안정 도모
    - \* 양돈농가당 19백만원, 녹두 재배농가당 34천원 등 직접 보상
  - (폐업지원) 돼지고기, 밤 품목 재배 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 지원, 해당 산업 구조조정 도모 및 경쟁력 제고
    - \* 양돈 사육 마릿수 기준 6.2% 규모 및 밤 재배 면적 기준 2.6% 규모가 폐업 예정임에 따라 적정생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효과 제고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과거 3개년 실적치의 평균보다 낮아 목표 적극성 부족 및 ‘20년 목표 미달성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또는 지표 재설정 등을 통해 성과 목표의 적극성 제고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성과평가,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한 국내외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추진계획 수립</li> <li>○ 환경분석, 지자체 의견수렴 등 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인 농업단체와의 대화 등 갈등관련 분석 미흡</li> <li>○ 성과지표는 농업인에게는 체감도가 높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 전체에게 시사하는 바로 상담 안내 만족도 등은 그 대표성 측면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짐</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타부처, 외부 전문기관, 위원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적 및 성과가 구체적으로 인정됨</li> <li>- 다만, 농어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 이외에 협업을 통해 과제 해결 등의 사례가 풍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지지율’은 과거 3개년 실적 평균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성에 대하여 낮음으로 판정</li> <li>○ ‘상담만족도 조사’는 목표치를 보통으로 판정</li> <li>○ 국가 간 협정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성과지표의 사회적 가치 인정</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방의 와중에서 제한적이거나 농업의 경쟁력 유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됨</li> <li>○ 국내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과제별 성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이해하나, ‘20 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실제 정책 효과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어려움</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점검,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현장의 민원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함</li> <li>○ 전년 자체평가 의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이 우수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365 생활권 조성)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접근성·이용도가 높은 생활SOC 시설을 보급하고 마을 곳곳으로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 365생활권(누계) : '18년 624개소 → '19년 1,058 → '20년 1,311(+253)
  - \*\*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 \* (노후·불량주택 정비) 7,178동, (취약지역 개조사업) 105개소
- (빈집정비)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업무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정비 추진 기반 마련
  - \*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특정빈집신고 등 법적 근거 마련
- (농촌신활력) '18~'20년 6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발굴·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추진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로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업 진척정도 및 주민의 사업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객관적 사업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속고가 필요한 지표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 (살기좋은 농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환경변화를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분석이 우수하다고 판단됨</li> <li>○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함</li> </ul>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 관리는 충실하며, 관련기관·정책간의 협업 노력도도 우수함</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성과지표가 2개 포함되어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이나, 달성도는 목표 대비 100% 이상으로 판정</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5생활권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은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지만, 농촌신활력사업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기술만 되어있고, 정책 현장에서 실제효과에 대한부분은 부재임</li> </ul>
④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요자 의견수렴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이 우수함</li> <li>○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은 인정되나, 성과지표가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속고가 필요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REC 가격하락, 계통접속 기간 증가에도 '20.11월까지 농촌태양광 1,288MW를 공급하여 온실가스(62만톤) 감축 및 고용창출(21천개)
  - 또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615억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 \* 농촌태양광 : ('18) 677 MW → ('19) 1,145 → ('20.11) 1,288
- (주민참여형) 저수지, 농지(마을단위), 염해간척지 등 농촌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모델을 제시하여 소득증대 및 수용성 증진에 기여
  - 염해간척지 사업모델 마련, 마을단위 연합형(1개소) 및 농업인 투자형 수상태양광(2개소) 등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신규 도입
  - \* 산업부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범위를 기존 협동조합 500kW 미만에서 1,500kW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에너지개발) '19년까지 준공된 84개 지구 수익성 분석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개선'을 통해 전기판매 수익금 125억원(P) 달성
-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및 표준모델 정립(5개소, 11품목) 지원
  - \* 경기 화성(마늘(한지형), 옥수수)·파주(콩, 양파), 전남 순천(오이, 딸기, 토마토)·보성(녹차, 배, 포도), 제주(마늘, 양파, 양배추)
- (에너지자립)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마을회관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과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
  - \* 울주군(건축면적 82m<sup>2</sup>, 이용자 85명), 장수군(건축면적 99m<sup>2</sup>, 이용자 50명)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걸맞게 농촌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에너지(풍력, 바이오매스 등) 발굴과 정책 사업 추진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설문조사, 여건분석, 현장의견 수렴 등 정책환경과 관련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충실하게 진행</li> <li>○ 과제 전체를 총괄하는 추진계획 수립 내용 제시 미흡</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준수함</li> <li>○ 농식품부, 농진청,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연구기관 등과 자문단 구성 등 협업체계 구축</li> <li>○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이 보통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li> <li>○ 3개년 대비 실적을 비교하였을 때 20년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으로 판단 - 각 지표 125.4%와 101.5% 달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소득 증진 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li> <li>○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소득증진 효과 긍정적이지만, 농촌태양광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li> <li>○ 태양광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효과는 보통</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과 갈등사항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 시행</li> <li>○ 내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여 효과성과 수익성 개선하려 노력함</li> <li>○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추진, 제도개선 등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 필요</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삶의 질 위원회) 그동안 삶의 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정책 추진체계 개편하고, 관련 법규 신설·보완 추진
  - 농어촌서비스 기준 일부 항목 보완·신설(시행령 및 고시 개정, 12월),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영지침 제정(고시 제정, 10.23)
  - 제4차('20~'24년)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규모는 51.1조원 수준으로 제3차 계획규모(46조 5천억원) 대비 약 9.9% 증가
- (농정협의회)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투명한 정책 추진과 공감대 형성 등 협치 농정 추진
-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업회의소 설립 지원 및 농어업회의소법안 마련으로 민·관 협치농정 기반 마련
  - 16개 지자체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25개 지자체는 설립 추진 중
- (농촌취약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대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전국 82개 군(郡) 중에서 공공형 택시는 75개 군에서 5,232대, 공공형 버스는 60개 군에서 227대가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 \* 운행지역 : ('19) 택시 76개 군, 버스 36개 군 → ('20) 75/60
    - \* 운행대수 : ('19) 택시 4,927대, 버스 131대 → ('20) 5,232/227
    - \* 운행마을 : ('19) 4,561개소(택시 2,636, 버스 1,925) → ('20) 5,764(택시 2,710, 버스 3,054)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다양한 업무를 통한 노력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성과와 농촌 삶의 질 구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다소 미흡
- 단기적 관점에서 마무리되는 것보다 지속적인 관리 활동이 이루어 지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예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촌 삶의질 향상 및 민관 농정 협치체계 구축의 정책명과 사업계획 성과지표가 연계되어 실행된 성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농촌 삶의질 향상을 대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과지표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 수가 농촌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li> </ul>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일정 관리 항목을 모두 실행</li> <li>○ 농정협의회, 삶의질 위원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삶의 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16개 부처청에서 178개 과제 추진</li> <li>○ 삶의질 정책 추진을 위한 삶의질 위원회 및 당정책 협의회 개최</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지표 모두 과거 3개년 실적과 비교했을 때 적극성 높음(일부 보통), 달성도 100% 이상</li> </ul>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취약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이외에 삶의 질 위원회, 공간계획,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정협의회 등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은 정책효과를 평가 결과, 통계 등 계량수치, 우수 성공사례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li> </ul>
④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시행, 농업회의소 관련 현장 의견수렴, 법제화 추진 등 관련 노력이 있음</li> <li>○ 전년도 자체평가지 평가위원 검토·지적 사항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 '20년 97만원 → '21년 100만원 인상
  - \*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천명) : ('19) 461 → ('20.11월) 476
  - 농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24년까지 5년 연장(국민연금법 개정, '20.1월)
- 사고·질병, 고령 등으로 농작업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 \*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지침 개정('20.4월)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9,417명, 156억원)으로 우수 농업분야 후계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기여
  -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을 농업대에서 농대·비농대생으로 확대하여 농업·농촌에 청년층 유입 구조 마련
- 농촌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지 소외계층 마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197개소, 5,012명)
- 사회적 농장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약 1,200명)에게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
  - \*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귀촌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육활동 등 실시
  - \* 사회적 농장 내 고용(보조강사, 행정·관리직) 및 지역사회 취·창업 지원을 통해 총 197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개 성과지표(농업인 복지서비스 만족도, 영농후계 장학생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비율)는 전년 대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증가율이 낮아 목표치의 적극성이 낮음으로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성과지표 경우, 산출지표, 투입지표에 해당하여 사업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보완 필요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한 지표 보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미흡	○ 통계,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조사 후 구체적이고 적절한 분기별 추진계획 수립 ○ 일부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성격이 강해 보완 필요
② 집행의 적절성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일제 조사 등 2개 일정에 대해 평가 당시 미완으로 심사 ○ 협업실적이 인정되며 성과 또한 우수함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 4개 성과지표 모두 달성률은 100% 이상 ○ 다만,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 설정의 적극성이 낮음으로 평가(3개년 평균 대비 보수적인 목표 설정)
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 정책효과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필요
④ 환류노력도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 농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추진 등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 이행 ○ 일부 성과지표는 지속 검토 필요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추진체계) 지자체 전담부서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마련
  -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조직('19: 2→'20: 4개), 5개년('21~'25) 기본계획 마련
- (인력양성) 경영주 중 여성농업인 비율 확대,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12백명),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18백명) 등
  - \* (공동)경영주 중 여성농업인 비율: ('19) 497천명(28.9%) → ('20.11.) 531(29.9%)
- (성평등) 농촌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21명)하고 교육확대
  - \* 농식품 공무원 성인지 교육(11명), 부내 성평등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5건 시상)
- (협업체계) 양성평등,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협업체계 구축
  - \* 농촌형 여성친화도시(여가부), 여성농업인센터(농진청),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농협) 등
- (소통강화) 여성농업인 단체와 정례회의, 유관기관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 \* 정례회의 등(16회), 여성농업인 정책자료집 제작·배부(1만부)
- (복지지원) 소규모 어린이집 등 보육지원, 안전보건서비스 지원(65백명) 등
  - \* 소규모 어린이집(54개소), 이동식 놀이교실(7개소), 농번기 아이돌봄방(23개소) 등 지원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협업체계) 협업체계를 일부 구축하였으나, 관련기관 정책과 협업이 중요한 과제 성격상 추가적인 협업정책 발굴 및 체계구축 노력 필요
-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투입·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지표를 신규지표 개발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협업정책 발굴 및 체계구축 추진
  - \* 농촌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고용부, 법무부) 등
- 정책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결과지표로 신규지표 개발 추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가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지표 필요</li> <li>*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정도, 돌봄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많음에도 관련기관 정책간 협업체제 부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량적 실적 관리가 필요함</li> <li>○ 성과가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에 한정되는 등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이거나 가시적인 정책효과는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행된 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및 실질적인 질적 개선 및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의 기술이 미흡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
  - 맞춤형 지원으로 선도 경영체 육성 및 특화품목 중심 1·2·3차 산업 종합육성을 위한 지구 조성
    - \* 인증사업자 수 : ('17) 1,397개소 → ('18)1,524 → ('19) 1,624 → ('20) 1,840
    -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네트워크 수(누적) : ('19) 24개소/77개소 → ('20) 28/84
- 소규모·영세 인증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전용판매관 확대, 대형 유통사 입점·기획전 추진 등 판로 지속 발굴
  - \* 갤러리아백화점 광고점 내 76개 경영체, 522개 품목 판매, 비온드팜 2호점 개설('20.3)
  - \*\* 민간 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쿠팡, 우체국물, 세븐일레븐, 한유총·한어총)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인프라·R&D 등을 통합 지원한 결과 지구 매출액·방문객·일자리가 각각35.7%, 63.6%, 22.3%증가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일부 추진실적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계획적 추진을 위해 단계세분화 등 보완 필요
- 성과지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성과지표로 구체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적절성은 인정되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 수준
  - \* (목표치의 적극성) 지표1·2: 보통, 지표3: 높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별 추진실적 시기를 세분화·구체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단계별 세분화 등 보완 필요
-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목표치의 적극성은 전년 실적 대비 보통수준으로 적극성을 높일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인지도 조사·관계자 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달성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함</li> <li>○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결과중심의 지표를 설정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립한 추진계획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일부 추진실적 시기가 구체적이지 않음</li> <li>○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이 상세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갱신 신청비율, 지구 평균매출액의 성과목표 달성</li> <li>- 3개지표 관련 적극성 높음 1개. 보통 2개로 평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매출 증대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li> <li>- 지속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현장과 소비자 만족도 상승 기대</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장 회의·워킹그룹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마련 및 지구 조성방식 개편 등 노력</li> <li>○ 검토의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고 이행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경영체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경 사업 반영,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
  - (농촌관광할인지원사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관광 경영체 지원을 위해 추경에 사업 반영('20.7.27~)
    - 카드사와 제휴하여 농촌관광 경영체에서 결제 시 결제액의 30% 할인
    - \* 참여 경영체 1,553개소(농촌체험휴양마을 525, 관광농원 96, 6차산업인증 사업자 335, 교육농장 469, 낙농체험목장 29 등)
  -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보급) 코로나19로 현장 체험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대상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보급 지원(5억원)
    - \* 279개소 507개 체험키트 선정, 467개소 보급(어린이집 226, 유치원 160, 초등학교 50, 중학교 31)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유형별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마을 등 시범 적용(1.5억원)
    - \* (체험키트형) 양평 보릿고개·충남 외암민속마을, (숙박형) 양평 수미·전남 녹향 월촌마을, (트레킹형) 강원 대기리마을·전남 청산도농업유산, (피크닉형) 전북 우동권역마을, (동물체험형) 강원 동키마을 등 8개 마을(시범운영 11회, 168명)
  - (금리인하) 농촌관광경영체(체험마을, 민박, 관광농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1%p) 및 상환유예(1년 연장)
    - \* 개선 : (운전) 금리 2.5%→1.5%(1%p 인하), (시설) 금년 중 상환 기간 도래자금의 상환 기간 1년 연장

- (농촌체험마을) 1,115개소에 손소독제 등 구매지원(260백만원) 및 마을사무장 활동비(14개 지자체 5,656백만원 지원) 조기집행(~6월)
- (민박) 농촌민박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농업인인 사업자에서 전체 민박사업자로 한시적('20년) 확대(4.7. 지침개정, 5.4~12.31. 적용)
  - \* 자금 지원 내용(농업종합자금) : 운영자금(2년 이내 상환, 고정금리 2.5%, 변동 1.11%)
- (안전·방역) 안전농촌관광을 위해 체험마을, 업체 등에 방역지침 마련·배포(2회, 7.31, 8.3)하고, 관리·점검(2회, 6.18~7.31, 10.15~23) 실시
  - \* (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1,115개소, 관광농원 863, 농촌민박 28,551 등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촌체험마을 체험관광객수, 외국인 농촌관광 방문객수 이외의 새로운 지표 필요
  - 콘텐츠 품질 등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추가(보완) 지표 필요
  -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관련 성과 측정 가능 지표개발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기적으로 단순 방문객 이외에 농촌관광 콘텐츠 품질,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관련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발굴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농촌체험마을 체험관광객수, 외국인 농촌관광 방문객수) 이외의 새로운 지표 필요</li> <li>- 콘텐츠 품질 등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추가(보완) 지표 필요</li> <li>- 농촌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체부, 해수부 등 타부처 및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민간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가 우수</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환경(코로나 19)를 고려할 때,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나,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인정</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정책수정 내용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인정</li> <li>○ 농촌 관광 경영체 매출 증대 및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농촌 관광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바와 그에 따른 성과도 인정</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워크숍,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 수렴 및 개선 사항을 발굴 및 외부 지적 사항에 따른 정책 개선 노력 인정</li> <li>○ Post-Pandemic 차원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은 꾸준히 지속되어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활성화에 기여
  - \* 귀농귀촌 인구(귀농): ('13) 422,770(17,318) → ('18) 490,330(17,856) → ('19) 460,645(16,181)
  - \* 농촌인구 : ('10) 8,758천명 → ('16) 9,501 → ('17) 9,629 → ('18) 9,714 → ('19) 9,756
-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 지원 성과 창출
  - 농외일 자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역의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지자체 등)에는 귀농귀촌인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연계
    - \* '20년 13,914명의 정보를 연계하여 1,228명이 취업 성공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귀농귀촌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일자리 탐색·체험 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목적(코로나19에 따른 구직자 증가 대비), 교육 성격(일자리 정보 획득 및 체험) 등에 비추어 구직자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
  - 특히, 농업일자리 체험교육은 현장실습에 대한 수당(최대 6만원)이 지급되며, 구직급여와 병행수급하는 경우 월 30만원 수준의 추가 소득이 발생
    - \* '20년 농업일자리 탐색·체험 교육 수료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는 443명이며, 이 중 132명이 현장실습 수당과 구직급여 병행수급의 혜택을 받음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가 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이 요구됨

-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귀촌 정책의 지원 확대가 필요
- 현장에서 귀농귀촌 희망자와 밀접 접촉하는 귀농귀촌 교육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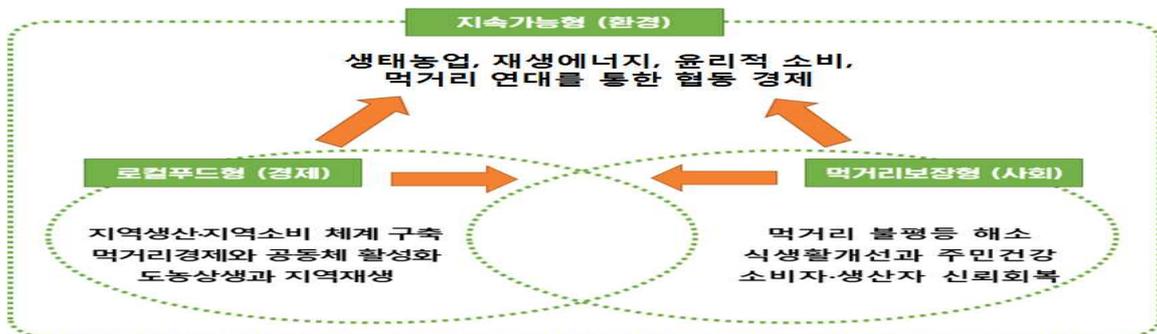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실태조사·워크숍·전문가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에 반영함</li> <li>○ 성과지표의 대표성·결과지표여부·신뢰성 등이 인정됨. 다만, 두 지표 모두 교육 중심 지표라는 점에서 지표의 통합 또는 다른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의 설정 등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계획이 코로나19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대응한 노력이 인정됨</li> <li>○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자리 탐색·체험 교육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나</li> <li>○ 각종 설문조사·협업 등 과제 분석을 통한 구체적 개선 과제 발굴·정책반영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교육 후 정착률 지표는 적극성 높음이나 만족도 지표는 적극성 보통으로 판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정책으로 농업인구 증가 및 농림어업취업자수 증가 등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높고 농업인력구조 개선으로 상위목표 성과에 기여함</li> <li>○ 귀촌 정책 확대, 정착실패 문제 해결 등으로 정책 효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업무추진에 반영함</li> <li>○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로 정책효과 극대화 및 만족도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교육수료생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음</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먹거리 공공성’ 실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민관 협치에 기반하여 지역단위의 통합적 체계 구축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 취약계층 영양 개선 등 먹거리 복지, 식생활 교육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 지역의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식품을 조직화하여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외식업체 등 지역 내 주요 수요처로 순환
  - 공급 뿐만이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올바른 소비 인식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기반 강화, 안전 문제 등 관심 증가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활성화 및 직거래매장,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처 확대, 농가 소득 및 소비자 편의 제고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는 보통 5~6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단계를 1~2단계로 감축하여 유통비용 절감 효과
  - 직거래 등 신유통 경로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은 연간 1조 3천억원 절감, 출하자 수취가 제고로 안정적 소득확보 기여

## 현장 사례\_기사

-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5년, 매출 1천억원 달성(연합뉴스, '20.8.13)
  -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액이 1천1억원을 달성했으며, 218개 농가 → 954 농가로 참여 농가수 증가, 소비자 회원 역시 총 47,000명으로 하루 평균 3,800명 방문
-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 1일 평균 660만원 매출 달성(뉴스1, 20.10.6)
  -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점 1년만에 1일 평균매출 66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3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8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창출한 농가도 배출

- 군대·혁신도시 공공기관·정부청사 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선도모델 창출·확산 추진
  - (군 급식) 비접경지를 포함한 전체지역으로 확대 및 단지장 전면 폐지로 로컬푸드 비중 40% 달성
  - (공공기관) 전남 나주('18), 전북 전주·완주('19)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20년 3개 혁신도시 (경남 진주, 경북 김천, 강원 원주) 공급 체계 구축
  - (정부청사)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 \* 9개동 2개 위탁업체 구축
- 식생활교육체험 기회 확산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자발적 노력 향상 및 우리 농산물농업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식생활 교육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필수 요소인 지역 농산물 선호, 농업·농촌 등 지역 이해, 생산 과정에 대한 인지 등 평가 점수가 대폭적으로 증가

문항	사전	사후	증감
성인의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 필요 여부	87.1	91.7	4.6
아이들의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 필요 여부	89.3	93.0	3.7
생산 과정을 알리는 노력	72.5	80.0	7.5
지역 농산물 선호 정도	71.8	79.7	7.9
농촌체험으로 농업·농촌을 이해하려는 노력	73.2	83.9	10.7
음식물 쓰레기 절감	76.5	84.6	8.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역단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지자체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지역 먹거리 관련 푸드플랜 수립 관련 내용의 구체화와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노력 수반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식생활 교육을 받는 소비자의 교육 수요 조사반영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지원 확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추가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의 목적인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 식생활 교육 등 각 단계별 연계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절한 추진 계획을 수립</li> <li>○ 설문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li> <li>○ 현행 로컬푸드, 공공급식, 푸드플랜 등 전략적 영역에 대한 실태 분석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보완이 요망</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산 추진</li> <li>○ 수의 계약 근거가 되고 있는 군과 농협중앙회 등이 체결한 협정서 개정 및 로컬푸드 확대를 저해하는 단장전 전면 폐지로 협의 노력이 우수하며, 특히 국방부와 농협과의 협의 등이 우수</li> <li>○ 수요자 협의 및 관련 성과 연계 등 거시적인 정책 성과 연결을 위한 협업과제 추진 등 추가 개선이 요망</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1의 달성도는 108%이며 그 외 지표는 89% 이하였음.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 실적을 집계 중이므로 최종 실적에 따라 달성률이 변할 수 있음</li> <li>* '12월 현재 모든 지표 달성률 충족(추후 반영)</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li>○ 유통단계 감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가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표준 시스템 개발, 로컬푸드 인지도 상승, GAP 소비자 인지도 상승 등 정책효과가 우수</li> <li>○ 지역모델 발굴 확산 등 영향력이 큰 정책효과 제시필요</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의견수렴, 원인분석, 해결방안도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li> <li>○ 시민사회 참여, 드라이브 스루 직매장 판매 방식 제공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li> <li>○ 공공급식 관계자, 농식품 소비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함. 로컬푸드 매장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농산물 안전관리)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실천력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를 추진한 결과 농업인의 농약 사용 인식개선으로 PLS 연착륙
  - 제도 시행 이후 '20년 농산물 부적합률이 전년대비 0.1% 감소
  - \* 농산물 생산단계(농관원) 부적합률은 0.3%p 감소('19. 1.8% → '20. 1.5), 유통단계(농관원, 지자체)는 전년동('19. 1.0 → '20. 1.0)
- (축산물 안전관리)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 및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에 기여
  - (농장 HACCP)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통한 HACCP 인증 농장 확대와 인증 사후관리 강화로 HACCP 제도의 내실화 도모
    - \* 축산 전업농가 HACCP 인증률 : ('15) 35.0% → ('17) 39.2 → ('19) 39.6 → ('20) 45.3
  - (도축장·집유장 HACCP) 합동 조사·평가 및 위생감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HACCP 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적합 작업장도 감소 추세
    - \* 부적합 대상 업체 수 : ('15) 38개 → ('17) 21 → ('19) 13 → ('20) 9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PLS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의 해소와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향상을 위하여 교육·홍보 필요
- (축산물 안전관리) 가축사육업(축산농장)은 자율적인 HACCP 인증 업종이므로 인증 확대를 위해 제도 추진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사용 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 (축산물 안전관리) 농장 인증 확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개편 및 HACCP 인증 농장 인센티브 방안 검토 등 제도 활성화 추진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양호하며,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신뢰성이 있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비 추진일정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21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베스트 도축장·집유장 선정은 일부 미완수('20.11월 기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1은 하향지표이며 3개년치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적극성 높음'. 다만, 성과지표 2는 목표치를 3개년 평균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적극성 낮음'</li> <li>- 두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임</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PLS가 효율적인 안전관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됨</li> <li>- 다만 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업소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할 필요</li> <li>○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보강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S 현장상담 창구' 운영, 생산자단체 간담회 및 지자체 담당자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식품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신속한 산업화 가능한 유망 분야 과제 조기 선정 등으로 R&D 성과 조기창출 환경 조성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 중심으로 신속한 산업화가 가능한 12개 과제 상반기 조기 선정·협약 체결
  - 기술거래기관 확대 등 기술거래 이전 촉진 기반 조성을 통해 이전 실적 큰 폭 향상(48건)
  - 주요 식품 R&D 사업 일몰 연장을 통한 투자기반 확보 및 사업 개편 기반 구축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식품업계의 인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푸드테크 창업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 확대
  - 농식품분야 최초로 ‘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신규 개설(한양대, 고려대(세종))
  - 민-관-학 협업 푸드테크 창업교육 실시 확대(’19:20명→’20:40)를 통해 특허출원, 창업, 기술이전 등 구체적인 성과 사례 창출
-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강화) 농업·식품업계 계약거래 확대를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관로 확보 및 원료수급 기여
  - 농업인의 계약재배 참여확대로 농업인 소득 안정망 안정적 확충
  - 신뢰성 높은 국산 원료의 안정적 확보로 추가 수익 창출 효과
  -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보급 활성화
-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이행) 활력제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산업여건 및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추진계획 설정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현황 파악, 전문가 협의체,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및 정책환경과 관련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함</li> <li>- 과제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추진일정도 잘 마련됨</li> <li>○ 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연관성이 높음</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협의체 구성, 기술이전협의체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이 우수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년 실적치 부족으로 2019년 실적치를 통해 적극성 평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기업 및 식품연구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더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li> <li>- 체계적인 식품 R&amp;D지원으로 성과도출 기대효과가 우수하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의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및 기업과의 설문조사, 간담회, 소그룹회의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우수함</li> <li>-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추진실적이 우수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외식진흥 및 코로나19 대응) 외식업체 경영 안정, 소비촉진 등 지원을 통한 외식업 활력 제고
  - (경영안정)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외식업체육성자금(융자) 조건 개선 및 규모 확대\*하여 추진
    - \* 총 지원규모 : 100억원→200(전년대비 100% 증), 지원금리 : 2.5~3%→2~2.5(0.5%p 인하)
  - 외식업소 국내산 식재료 사용량 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을 통해 농업과 외식산업 연계 강화에 기여
  - 청년 외식창업 지원 확대('19:5개소→'20:7) 및 신규사업(공유주방) 추진 (5개소)으로 안정적인 청년 창업 유도
  - (외식 소비촉진) 온·오프라인 이벤트 '푸드페스타(2~3월, 7~9월)', 한식당 할인행사 '코리아 고메위크(6~7월)' 등 추진으로 외식소비 확대를 통한 외식업체 매출회복에 기여
- (한식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한식 교육 한식당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한식 홍보 강화 등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 및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
  - (제도적 기반 마련)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시행('20.8.28)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2건) 제정
  - (한식 전문성 강화) 한식 교육기관(10개소) 지원, 국내외 파견 외교관을 위한 한식 교재(2종) 제작·배포(351개소, 1,300여권) 및 외교관 배우자 대상 한식교육\*(2회, 3·10월) 신규 추진
  - (한식당 경쟁력 강화) 창업 3년 이내 한식당(25개소) 국산 식재료·홍보 등 지원 및 해외 한식당(58개소) 한국적 이미지 물품 보급 등 추진
  -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 한식당 협의체(6개국 14개) 한식 급식사업,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지원을 통해 쌀, 전통장류, 가공품 등 65톤 수출 예정

- (한식 우수성 확산) 코로나19 대응 한식 체험 영상콘텐츠 제작(24건), 한식 체험 밀키트 개발(12개)·배포(20개국, 1,000개)
- (식사문화 개선)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심식당 지정) 식사문화 개선의 확산을 위하여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덜어먹는 그릇 등 관련 물품 지원
    - \* 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0,340개소 지정운영 중(20년 목표 21,167개소 대비 96%, 11.26일 기준)
  - 안심식당 지정 정보의 효과적인 대국민 공개를 위하여 T맵, 네이버 등과 협업하여 검색과 정보조회 서비스 개시
- (국민 참여 홍보) 덜어먹기 등 식사문화 개선과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덜어요 챌린지) 개최
- (우수모델 발굴)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선정(96개소, '20.6) 및 유형별 우수 모델 20개소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1,000부, '20.11)
- (맞춤형 식기 등 발굴)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7~8) 및 분야별 우수작 선정하여 전시·홍보('20.11)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추진계획 수립시 성과분석과 환류 등 구체화 필요
- 문체부, 지자체 및 민간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상시화된 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보완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협업체계 구축 관련 상시화된 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주문과 배달 등 식품산업의 디지털 거래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강구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분석 실시와 각계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함. 특히,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조기 대응이 우수하며, 분기별 과제계획을 수립함</li> <li>○ 적절한 세부과제 도출과 추진 및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적절하나, 성과 분석과 환류 등 구체화 필요</li> <li>○ 다양한 분야의 성과지표가 균형감 있게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지표의 측정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은 편임</li> <li>○ 지표 모두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의 수준을 측정 관리하는데 대표성을 확보함</li> <li>○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작성하였으며, 과제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집행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하에 적절한 대응 노력이 인정됨</li> <li>○ 지자체 및 민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실적 및 협업과제 발굴 등 추진실적이 우수함</li> <li>○ 문체부, 지자체, 민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상시화된 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은 보완이 필요함</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 등 목표 달성</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조기 대응방안의 마련에 따른 성과 발생 등 현장에서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남</li> <li>○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식진흥, 경영안정 그리고 한식문화 조성 등에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도출함</li> <li>○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함</li> <li>○ 코로나19 확산에 정책적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소기의 정책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li> <li>○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주문과 배달 등 식품산업의 디지털 거래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강구 필요</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가 적절함</li> <li>○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시행함</li> <li>○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개선함</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원료 발굴) 황산화, 인지능력, 과민피부 개선 등 17개 기능별 대체 원료 조사를 통해 수입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가능성 농식품자원 발굴
  - \* 국내 재배 가능하고 생산량 파악이 가능한 국내 자생 식물소재 3,768건 조사
- (가능성 임상지원) 식품기업 대상 가능성 원료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임상 시험 지원(29건)
  - \* 인체적용 전 7개(오미자, 흑미, 천마 등), 인체적용 1년차 7개(하수오, 녹차, 비트 등), 2년차 15개(인삼열매, 버섯 균사체, 도라지 등)
- (가능성 규명) 가능성 규명 사업단을 구성하여 문헌분석, 원료 표준화, 인체시험 등을 통해 식약처 등록 신청(2건)
  - 식약처, 농진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3.12)하여 심의기간 단축
    - \* 마늘, 블랙라즈베리, 복분자, 당조고추, 갯잎 5개 소재를 발굴·분석하여 이 중 블랙라즈베리, 마늘 등록 신청
- (기업 컨설팅) 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교육 및 시험분석을 지원(168건), 식약처를 통해 제품화 등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15건) 지원
- (원료 보급) 국산 농산물 유래 가능성 원료 생산·보관·공급을 위한 가능성 원료은행 구축 추진
  -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북 익산 선정('20.10.8),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안에 설립 예정
- (일반식품 가능성 표시) 식품기업, 식약처와 합의안\*을 마련하여 12.29일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 시행
  - \* 가능성표시식품 14건 개발

## □ 정책성과

-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원료 등록 지원 등 기반조성, 컨설팅 등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식품기업의 경영·기술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등 국내 기능성 식품산업 시장규모\* 성장

\*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 ('18) 44,268억원 → ('19) 46,699 → ('20e) 49,805  
(전년 대비 6.6% ↑)

- 다양한 기능성 원료의 식약처 개별인정등록 지원 등을 통해 기존 홍삼 중심이던 기능성식품 시장의 제품 다변화\* 추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홍삼 제품 비중 : ('16) 37.7% → ('18) 34.1 → ('20e) 28.8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코로나19에 따른 TF 논의 지연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 도출 애로 등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지연(당초 4월→20.12.29제정)

\* 고시제도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연말(12.29~12.31)까지 '기능성 표시식품 25건 개발' 성과목표에서 14건 달성

- 현장의 요구, 민원 등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미비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능성식품산업 현장의 요구, 민원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필요

- 개별인정등록·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건수 이외 매출액 증대 등 실질적 성과 분석 필요

- 식약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성과지표는 성과 측정을 위한 대표성이 있으나, 향후 매출액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발굴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항을 유연하게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과업의 충실한 관리를 함</li> <li>○ 기능성 원료은행 실시체계 등 일부 지연</li> <li>○ 식약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축하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관련 식약처 고시 제정 지연으로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건수(건)의 달성 미흡</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로 향후 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li> <li>○ 기능성 식품시장의 다변화 등 일부 성과는 인정되나,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등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어 보임</li> <li>○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및 식품 품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제도 마련 필요</li> <li>○ 현재의 사업 예산 규모로는 충분한 정책지원이 어려움</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업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모색은 했으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정책 반영 미흡</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수출 스타품목 육성·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수출 스타품목 육성) 코로나19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출하 시기 연기 등 수출 환경이 열악했으나 전년 대비 수출 9.1%↑
    - \* 스타품목 수출금액(백만불) : ('19) 77.9 → ('20) 85.0 (9.1%↑)
  - (수출시장 다변화) 코로나19가 재확산을 거듭하여 물류·소비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로 다변화 확산
    - \* 김치(56.9%↑)·포도(42.9↑) 등 품목의 신남방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신남방지역 수출 15.6억불 달성(전년 대비 9.1%↑)
    - \* 김치 수출의 대부분('12년, 80%)을 차지하던 일본 비중이 '20년 50% 이하로 감소하는 등 김치 수출 시장 다변화 진전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계획 수립 시 생산부터 수출까지 스타품목 육성 내용의 계획 반영 필요
-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상황 악화 속에서도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여 농식품 수출이 선전하였으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온라인·디지털 수출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구체화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별 적절한 월별 추진계획 수립
- 온라인·비대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마련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이 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음</li> <li>○ 단계별 관리과제 수립, 분기별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과제 추진 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함</li> <li>-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행사 외에도 생산부터 수출까지 스타품목 육성 내용의 계획 반영 비중을 높일 필요</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0건 계획 중 13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대체, 사업취소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27건은 계획 준수</li> <li>○ 관련기관 협업 결과 UN조달시장 및 파프리카 신시장 개척 등 협의 실적은 구체적이나 일부 사안의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액 목표(1,750백만불)는 과거 3개년 연평균 증가율(4.5%)보다 4.7%p 큰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성 보통으로 평가</li> <li>* 신남방·신북방 과거 3개년 평균 수출액 : 1,603백만불</li> <li>○ 그 외 4개 목표는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상황 악화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선전하였고 본 과제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됨</li> <li>○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온라인·디지털 수출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인센티브, 지원, 규제 등) 구체화 필요</li> <li>○ 스타품목 발굴·신시장 개척 외에도 수출 지속성(기존 상품, 기존 시장, 중견수출기업) 제고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애로 해결 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현장과 의사소통 시 과제에 대한 면밀한 문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li> <li>○ 성과지표 교체 등 외부평가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 및 개선내용을 제시할 필요</li> </ul>

## (1) 평가결과

## □ 주요성과

- (수출국 다변화) 해외 新시장 개척 및 우리 농식품 수출 가능국 확대에 따라 국내 농식품 시장 활성화, 수출 확대 정책에 관한 신뢰 제고 및 관련 업계의 수출 동기 부여
  - 對 호주 반려동물 사료, 싱가포르 멸균 식육 가공품, 페루·칠레 감 등 16개국 20건 협상 타결로 목표 대비 120% 달성
- (안정적 수출조건 마련)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19.9월) 발생으로 돈육 가공품의 수출협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가축질병 발생에도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조건 합의
- (대외 환경변화 대응) 코로나로 인한 인적·물적 교류 중단 등으로 국가간 검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원활한 수출 및 통관의 어려움 직면하였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른 대안 마련으로 신속 대응
  - 위생증명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상호인정토록 합의, 상대국 요구 검역정보는 비대면 협상을 통해 사본인정 방식으로 문제점 해소
- (새로운 수출검역체계 마련)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 방식의 수출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체제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수출검역 체계 구축 계기

##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주요 수출시장이나 수출품목 관련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
- 중점 협상품목 선정기준 등 계획에 맞춰 성과 도출 필요
- 현재의 성과지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다른 지표개발 필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aT 등을 통해 품목별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과제에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b>① 계획수립의 적절성</b> 1-1 계획수립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검역 협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립 및 대내외 여건과 사례 분석 등은 미약하거나 보통 수준임</li> <li>○성과지표인 ‘수출 검역협상 타결(건)’과 ‘현장 수출검역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한 수출기여’의 대표성 확보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됨</li> <li>-단, ‘수출기여건수’의 경우 ‘기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추가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li> </ul>
<b>② 집행의 적절성</b> 2-1 추진일정관리의 충실성 2-2 관련기관 협업 노력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 19로 인해 8개 계획에 대한 대체업무 수행하여 모두 완수</li> <li>○농수산식품 SPS 협의회는 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로 구성하여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1 성과지표의 달성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목표는 보통 수준이나, 목표대비100%이상 달성            *(달성률) 성과지표1 : 118.8%, 성과지표2 : 116.7%</li> </ul>
<b>③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b> 3-2. 정책의 효과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신규 시장개척을 수행하는 등 농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구제역, ASF 발생으로 수출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는 등 지속적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li> <li>-다만 중점 협상품목 선정기준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신규시장 개척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20년 실적에는 이와 연계되는 사례가 부족</li> </ul>
<b>④ 환류노력도</b> 4-1. 현장과의 의사소통 충실성 4-2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 등과 농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점검 회의 진행하여 각 사업별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시도</li> <li>-단, 상대국의 대응과 국내 여건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산재하고 있어 더욱 정책적 부분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li> <li>○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개선 정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성과지표의 다양화는 미흡</li> </ul>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1-①	○ 관련기관 및 정책간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슈에 따른 협업의 체계를 확대할 필요	○ 정책간 협업체계가 필요한 이슈 발생시 협업체계를 확대·운영 대응(연중)
1-1-②	○ 적극적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 예산확보현황, 농식품펀드 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극적 성과목표치 설정('21년도 성과계획서 수립시 반영)
	○ 다양한 협업체계 구축	○ 전문가(산업계·금융계 등)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21년)
1-1-③	○ 2030세대 등 수혜대상자와의 소통확대 필요	○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의 의견수렴추진('21.3분기)
I-2-①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목표 설정 필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사업성과를 농업환경·보전인식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지표에 따라 평가('21년 5개소)
	○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과제 발굴 필요	○ 친환경 농업 집적화를 통한 비의도적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지구의 집적화 현황을 점검하고 집적화를 유도하도록 사업시행지침 개정('21.2월)
	○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대책의 지속적 발굴 필요	○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체계 마련('21년)
1-2-②	○ 축산농가 자정활동 강화 및 인식 전환 필요	○ 축산환경·소독의날 운영(매주) ○ 축산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추진(연중)
	○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 우수사례집 배포, 언론 보도자료 등(연중)
	○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활동(내용)의 사후관리 강화	○ 지역협의체 구성 등 지역내 협업체계 구축,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연중)
	○ 성과지표 적정성 향상	○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2월)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 실집행률 점검 등 강화(연중)
1-2-③	○ 동물등록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동물등록현황 점검실시('21.12월)
I-3-①	○ 결과 중심의 결과지표 고려 등 일부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신규 성과지표 발굴 및 지표 보완('21.4월)
	○ 농업 부문 데이터(디지털) 경제 활성화(디지털 뉴딜)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이용 전반의 데이터 생태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	○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마련('21.7월)
	○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4개의 R&D기능의 차별화와 내실화 방안 마련을 권고	○ 혁신밸리 4개소 각각 차별화된 실증 특화분야 구체화 및 스마트팜 다부처 R&D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단지 참여 유도('21.11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I-3-②	○ 유사중복 해결,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R&D협업 필요	○ 사업설명회, 공동 과제기획 및 통합공고 등 R&D 단계별 협업 강화(~'21.12월)
I-3-③	○ GSP 시행계획수립시 의견수렴 등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	○ GSP 사업 종료('21년) 후 연구성과 분석 및 후속사업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자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21.12월)
	○ 의견수렴 및 산업분석을 통해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필요	○ 과제목표달성을 위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21.6월)
I-3-④	○ 상위목표인 기술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추진(~'23년)
	○ 농기계 개발 R&D 적극 지원 필요	○ 자율주행 트랙터, 밭농업 지능형 로봇, 토마토 수확로봇 등 R&D 지원(~'21년)
	○ 발토양 산도, 농기계 수출액 등 일부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제고 필요	○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21년 성과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노력(~'21년)
	○ 과제명에 부합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개발 필요	○ 농기자재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농가 생산비 간접 지원을 집중 추진, 포화 상태인 내수시장에서 탈피하여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수출 기업 지원 확대(~'21년)
1-4-①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분석, 의견수렴 철저 및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	○ '21년도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수립시 사전 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 반영('21.2월)
	○ 대국민 서비스 관리 보완	○ 적극적인 의제 발굴을 통한 FTA 협상·이행위 대응('21년 연중)
	○ 성과 지표 개선 필요	○ 외부 전문가(KREI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 지표 개선('21.2월)
1-4-②	○ 국제기구 회의 대응에 대한 실적 지표보다 대응 후 결과에 따른 성과지표 발굴 필요	○ 기존 성과지표 외 추가 지표 보완('21.4월)
1-4-③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성과지표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종합평가 연구를 통한 성과지표 추가 발굴 등 개선 검토('21년)
	○ ODA 성과지표 신규발굴 필요	○ 농어촌공사 등 ODA 시행기관과 협업하여 성과지표 신규 개발 등 개선 검토('21년)
2-1-①	○ 쌀 및 쌀가공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수립 추진 필요	○ 쌀 소비 활성화사업 개편 마련('21.1월) * 세대별 맞춤형 쌀 중심 식습관 형성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사업으로 쌀 및 쌀가공식품 소비촉진 및 긍정적 인식 제고
	○ 쌀 수급안정 관련 통계, 사례, 외부환경변화, 갈등요인 등 분석을 통한 수급대책 수립 필요	○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21.10월) * 관련통계(생산량, 소비량 등), 외부환경변화(기상 여건 등), 갈등 요인(정책수요자 등) 분석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추진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1-②	○ '21년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 밀, 콩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 추진(~'21.12월)
	○ 대량수요처 확보 등 소비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마련	○ 대량수요처 발굴 및 소비 확대 추진(~'21.12월)
2-1-③	○ 정책 추진 시 전체 정책소비자(농어업인, 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필요	○ 전체 정책소비자 대상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실시(~'21.12월)
2-2-①	○ 재해보험 적정 보험료 부과, 보험선택권 확대 등 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재해보험 제도개선사항 확정 및 공유 - 농업재해보험 설명회('21.2월)
2-2-②	○ 사전조사 분석절차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계획수립 반영 필요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및 지역주민 대상 사업추진계획 설명회 실시 등(연중) ○ 농업용수 거버넌스 운영·관리(연중) ○ 농어촌물포럼 운영(연중)
	○ 정책수립 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AI·ASF 등 가축질병 방역대책 수립('21.6월)
2-2-③	○ 방역기반 확충사업 평가	○ 농가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시 반영('21.6월)
2-2-④	○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여 이에 근거한 정책수립 추진	○ 축종·농가별 백신 항체양성률을 평가, 수준별로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항체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차등 관리('21년, 상시)
2-2-⑤	○ 성과지표에 농가 방역실태 조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 추가 권고	○ AI 예방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 방역/소독시설 및 거점소독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보완 등 방역개선 추진(~'21.10월)
2-2-⑥	○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업과 대응 필요	○ '21년부터 환경부와 농식품부간 협업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상호 부처간 적극적인 대응 예정('21.3월) ○ 야생멧돼지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계획('21.1월) - 멧돼지 포획, 수렵, 차단울타리 대책 등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도 강화
	○ ASF 차단을 위한 방역통제조치 시 생산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선점 발굴 필요	○ '21년 대책 추진시 관계부처·지자체, 민간전문가, 협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 추진('21.1~12월) - 중앙사고수습본부 주3회 회의 개최, 협회와 민간전문가 회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지속 개최 예정
2-3-①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필요	○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21년)
	○ 온라인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품목 확대, 참여자 확장성 제고 등 필요	○ 시범사업 품목 확대('21년 1~2품목) ○ 온라인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21년)
2-3-②	○ 주산지협의회 프로세스 개선	○ 고랭지배추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 개최('21.9월)
	○ 계량적, 목표 상향적 성과지표 발굴 검토	○ 목표 상향 조정 여부 검토('21.5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3-③	○ 민간 자원의 수급관리에 대해 수급조절협의회 정례화 및 협의회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축산 자조금 사업 연계 필요	○ 자조금 연계 생산자중심의 축산자조금 사업 운영(연중)
	○ 수급조절협의회 등 효과적 운영 방안을 위해 매뉴얼 등 마련 필요	○ 축종별 수급조절매뉴얼 마련('21년)
2-3-④	○ 계획수립을 위한 분석내용의 구체성 확보 및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	○ 계획수립 시 통계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 하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마련('21.4월)
	○ 허가제 관련 성과지표 개발	○ 허가제와 관련된 성과 지표 정비('21.4월)
2-3-⑤	○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지표 보완	○ 시설원예 보급 실적과 성과 제고를 연계할 수 있는 생산지표 기준 마련('21.11월)
2-3-⑥	○ 화훼소비촉진 홍보와 소비관련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체와 긴밀하게 홍보가 소비로 직결되는 화훼소비 촉진 방안 마련	○ 전문가 회의체(화훼단체 등)와 긴밀한 협조로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효과에 따른 꽃 소비 분석 실시('21.12월)
	○ 재사용화환 유통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신화환의 장점(꽃나눔 가능, 친환경 화환 등)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 방송·언론 등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신화환 홍보 실시 및 건전한 화환문화 조성을 위한 재사용화환 단속 실시(수시)
2-4-①	○ 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공익직불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21.~'22)
		○ 이해관계자와 소통 체계 마련(연중)
2-4-②	○ 3개의 성과지표가 제도 개선의 투입지표로 구성 ○ 정성적 지표로 다 구성을 하다보니 결과중심의 성과 지표에는 한계	○ 과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가 결과중심의 체감지표임을 알 수 있도록 환류효과 등에 대한 충실한 근거자료 제시 ('21년 성과보고서 작성 시)
		○ 과제 추진계획 수립 시 성과보고서 제출(11월말) 까지 성과창출이 가능한 성과목표 설정 ('21년 성과계획 수립 시)
2-4-③	○ FTA 주요품목 가격지지율의 목표 설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 필요	○ '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21.5월)
3-1-①	○ 취약지역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주민만족도 지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숙고 필요	○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21.6월)
3-1-②	○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걸맞게 농촌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에너지(지열, 풍력, 농업바이오매스 등) 발굴과 정책 사업 추진 필요	○ 농촌에너지 소비 구조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로 단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정비·예산지원 방안 연구 추진('21.상반기)
		○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등 농업·농촌의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1.하반기)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2-①	○ 농촌 삶의질 향상을 대표할 수 있는 포괄적 성과지표 발굴 필요	○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발굴('21.3월)
3-2-②	○ 맞춤형 복지 강화 과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농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성과지표 개선('21. 상반기)
3-2-③	○ 관련기관 정책간 협업체제 부족	○ 협업정책 발굴 및 추진체제 구축(연중)
	○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지표 필요	○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지표 개발('21.2월)
3-3-①	○ 추진계획의 단계세분화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21.2월)시 월·분기별 세부 시행 계획 포함
	○ 성과지표의 적극성 높일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21.4월)
3-3-②	○ 성과지표(농촌체험마을 체험관광객수, 외국인 농촌관광 방문객수) 이외의 새로운 지표 발굴 필요	○ 기존 성과지표 이외에 농촌관광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 마련('21.3월)
3-3-③	○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수료자의 정착률 및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이외 사업을 포함하는 성과지표가 되도록 개선('21.5월)
	○ 귀촌 정책 확대, 정착 실패 문제 해결 등 정책 모색 필요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으로 귀촌희망자들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고 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에 준비된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정착 실패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정책 추진('21.3월)
	○ 귀농귀촌 교육기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교육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현재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의 애로사항인 높은 자부담 비율에 따른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일자리 참여 지원을 통한 청년귀농 장기교육 자부담 완화 등을 추진(~'21.12월)
4-1-①	○ 식생활 교육을 받는 소비자의 교육 수요 조사반영 필요	○ 광역·기초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실시('21.6월)
	○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지원 확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추가 필요	○ '21년도 성과지표로 농식품바우처 관련 지표 추가('21.3월)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1-②	○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향상	○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홍보(연중)
	○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보강 필요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개편 및 HACCP 인증 농장 대상 인센티브 마련 추진(연중)
4-2-①	○ 산업여건 및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추진계획 설정 필요	○ '21년 사업추진계획 수립('21.4월)
4-2-②	○ 적절한 세부과제 도출과 추진 및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적정하나, 성과분석과 환류 등 구체화 필요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수립 시 성과분석 등 관련 내용 포함 예정(연중)
	○ 상시화된 체계 운영 및 모니터링 등 보완 필요	○ '21년 외식산업 진흥 사업 관련 세부 추진계획 등 수립 시 유관기관, 외식업체 등과 협업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보완 예정(연중)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주문과 배달 등 식품산업의 디지털 거래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강구 필요	○ '21년 컨설팅 사업 추진시 비대면 등 지원항목 보완 예정('21.4월)이며, 비대면 외식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22년)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절차 진행 중
4-2-③	○ 현장의 요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정책 반영 미비 ○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축으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 현장의 요구, 민원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정책 반영('21.12월) ○ 식약처와 협업하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가이드라인 마련('21.3월)
4-3-①	○ 계획 수립 시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일정에 반영 필요	○ 과제별 적절한 월별 추진계획 수립('21.3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온라인·디지털 수출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수단 구체화 필요	○ 온라인·비대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마련('21.6월)
4-3-②	○ 주요 수출시장이나 수출품목 관련 비관세장벽에 관한 전반적인 사전조사 필요	○ 수출 희망 품목별 수출시장,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조사 실시('21.2월)
	○ 다른 성과지표 발굴 필요	○ 기존 성과지표 외 추가 지표 개발('21.4월)